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성 구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이 미 경

2018년 8월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성 구축

지도교수 김 대 영

이 미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문초록】

보육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성 구축

이미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지도교수 김 대 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사소통 방법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교사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린이집교사들이 교사-부모간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어린이집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보육교사와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한 문항과 내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변형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보육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관계를 측정하고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변형하여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과 부모-교사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의 18개소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분석은 기본적으로 문항별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차이검증 및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52.9%의 보육교사들이 매일 5분미만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보육교사들(90.5%)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며 등하원시 개인알림장과 수첩 등 간단한 대화(71.6%)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설문 62.2%의 보육교사들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0.6%의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의 조언을 통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50.2%의 보육교사들이 현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부모의 태도 및 성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교사 개인 성향 및 교사의 전문성,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과 장소의 부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경력, 나이, 결혼유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부모

와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해결해보고자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며 관계형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경험이 이후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관계에 도움을 주는가?’의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시도와 대화경험이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가?’의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되는가?’의 질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관계형성 즉,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주제어: 보육교사, 부모, 의사소통, 관계성, 어린이집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4
가. 의사소통의 개념	4
나.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9
다.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10
라.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13
2.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	15
가. 관계성의 의미	15
나.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	15
다. 관계성의 중요성	16
라.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 관계의 어려움	18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도구	21
3. 연구절차	22
4. 자료분석	22
IV. 연구결과	23
1.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23
2.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0
3.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61

V. 결론 및 제언	73
1. 요약	73
2. 결론 및 논의	74
3. 제언	76
▣ 참고문헌	77
▣ 영문초록	83
▣ 부록(설문지)	86

표 목 차

<표 II-1> 의사소통 과정의 각 요소	5
<표 II-2> 의사소통 유형	6
<표 II-3>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6
<표 II-4>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 유형	10
<표 II-5> 교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어려움의 요인	13
<표 II-6> 부모와 유아교사의 관계성	16
<표 III-1>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배경	20
<표 III-2> 연구 도구의 구성 내용	21
<표 IV-1>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	23
<표 IV-2> 부모와 의사소통 시 1회당 소요시간	24
<표 IV-3> 부모와 의사소통 시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25
<표 IV-4> 보육교사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	26
<표 IV-5> 현재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정도계	27
<표 IV-6> 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28
<표 IV-7> 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만족도	29
<표 IV-8>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0
<표 IV-9> 늘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1
<표 IV-10> 할머니(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2
<표 IV-11> 교사를 비존중·무시하는 태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4
<표 IV-12> 암묵적인 태도로 불편함을 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5
<표 IV-13> 다른 소리를 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6
<표 IV-14> 교육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8
<표 IV-15> 아버님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39
<표 IV-16>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40
<표 IV-17>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41
<표 IV-18> 교사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42

<표 IV-19>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44
<표 IV-20>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45
<표 IV-21>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관찰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47
<표 IV-22> 대화 장소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48
<표 IV-23> 과도한 업무와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49
<표 IV-24> 부모와 영유아의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51
<표 IV-25>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과 부담	52
<표 IV-26> 부모와 앞에서의 위축감	53
<표 IV-27> 부모가 영유아의 문제를 원장과 먼저 상의할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	55
<표 IV-28>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어려움	56
<표 IV-29> 부모가 알지 못하는 영유아의 모습을 이야기 할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	58
<표 IV-30>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기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59
<표 IV-31> 의사소통 시 부모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한 어려움	60
<표 IV-32>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	62
<표 IV-33>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63
<표 IV-34> 영유아 교육에 부모와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	64
<표 IV-35> 일상적인 대화시도와 대화경험은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	65
<표 IV-36>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경험이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어려움	66
<표 IV-37> 부모와 의사소통 경로의 다양성	68
<표 IV-38>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 선택	69
<표 IV-39> 교사의 전문가다운 모습에 신뢰감 형성	70
<표 IV-40> 전문가다운 모습이 문제해결에 도움	71

그림 목 차

[그림 II-1] 의사소통의 과정 모형	5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으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있어서 필히 요구되는 중요한 교사의 직무능력(이은주, 2007)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직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혹은 이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어린이집교사들에게는 중요한 업무가 된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 현장의 어린이집교사라면 누구나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김보들맘·신혜영, 2000), 초보교사 뿐만 아니라 경력교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향아와 제경숙(2003)은 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부모의 지나친 요구,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부모의 요구 및 기대 간의 갈등과 같은 의견 차이의 문제로 인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요즘의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개별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양육되어졌던 과거의 영유아들과 달리 부모의 맞벌이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주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들이 낯선 유아교육기관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부차적인 애착 인물로 교사를 받아들이기까지 초기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윤숙·조희복, 2011). 초기적응과정의 불안은 영유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처음 보내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경험이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교사와의 관계가 부모와 영유아의 적응문제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연속선상에서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변인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며 때로 보육교사-부모 관계가 불편해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임경임, 2010). 현장에서 보육활동을 하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과의 보육활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자존감과 직무 효능감 또한 떨어뜨린다(임경임, 2010).

이처럼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이나 부모의 기관 활용의 만족에 대한 논의들은 ‘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 관계성이란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로서 상호적 작용을 의미한다(권미량·하연희, 2014). 하지만 영유아의 적응에서 영유아와 교사의 관계성이나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성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권미량·하연희, 2014; 김윤숙·조희숙, 2011; 박은미·조복희, 2003)은 육아의 부담을 갖고 있는 부모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힘든 관계를 호소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Schaefer (1991)는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 관계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을 드러내고 있다(권미량·하연희, 2014: 282에서 재인용).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형성은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며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유아들의 개별적인 요구, 흥미, 역량, 배경 그리고 학습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배율미·조유진, 2014)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의사소통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서영희·권미량·김은주, 2006; 손환희·정계숙, 2010).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들어나는 어려움을 부모와의 관계형성에서 해결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린이집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교사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린이집교사들이 교사-부모간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어린이집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을 부모와의 관계형성에서 해결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어려움을 살펴본 후 보육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가.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송신자의 의사, 아이디어, 정보, 태도, 감정 등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단순한 내용의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의미의 전달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며 그것은 반드시 이해되어 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은 의미의 전달과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다(손영숙, 1995). 어떤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쓸모가 없게 된다. 완전한 의사소통은 송신자가 의도한 내용과 의미가 수신자에 의해서도 똑같이 전달되고 이해될 때 가능해질 수 있다(손영숙, 1995).

Hanson은 수신자나 송신자는 소망, 기대 경향, 가치, 편견을 복잡하게 얽힌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에 송신자는 수신자의 사회 심리적 양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Katz와 Kahn이 지적했듯이 의사소통은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의 메시지를 단지 전달하는 과정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으며 의사소통은 그것이 일어난 사회체제와도 관련지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성취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손영숙, 1995).

1) 의사소통의 과정

의사소통의 과정은 [그림 II-1]과 같은 모형으로 그려질 수 있다.



[그림 II-1] 의사소통의 과정 모형(노종희, 1993: 323)

위의 [그림 II-1] 의사소통의 과정 모형에 있는 각 요소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 II-1> 같다.

<표 II-1> 의사소통 과정의 각 요소

의사소통 요소	내용
정보원 또는 송신자	메시지를 생산해 내는 의사 소통자이다. 의사소통자는 반드시 사람만일 필요성이 없으며 신문, 잡지, 또는 교육감, 교장과 같은 직위 등도 모두 의사소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기호화	송신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또는 정보를 부호나 상징으로 전환 시키는 과정이다.
메시지	기호화 과정의 결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통로	메시지가 흘러 다니는 송신로이다.
수신자	송신자로부터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접수하는 사람이다.
해독	수신자가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피드백	피드백은 송신자로 하여금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수신자의 반응이다.
잡음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방해요소이다.

출처: 노종희(1993: 324-327에서 재구성)

2)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의 유형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일방적·쌍방향 의사소통,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 하향적·상향적·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 와 같다.

<표 II-2>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 유형	내 용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을 수단으로 하여 직접 정보를 교환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두의사소통과 메모, 편지, 보고서, 안내문 등의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문서의사소통이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거리(상황 혹은 친밀감), 옷차림, 육체적 접촉(악수하기, 박수치기 등), 얼굴표정, 제스처 등 비언어적 표현들이 있다.
일방적, 쌍방향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 명령, 공문하달과 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수신자로부터 피드백이 있느냐에 따라 일방적 또는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의 공식적 통로와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의사와 정보가 전달된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하향적, 상향적, 수평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향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의 지휘, 명령계통에 따라 상사가 부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의하달식 의사소통이다. 상향적 의사소통은 부하가 상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이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서 같은 계층에 있는 개인 또는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출처: Hanson, E. Mark(1991: 재구성)

3)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으로는 조직의 크기, 선택적 지각, 준거체계의 상이성, 기호화와 해독, 언어상의 문제, 미소와 인내, 여과, 수용거부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며 장애요인별 내용은 아래 <표 II-3>과 같다.

<표 II-3>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의사소통 장애요인	내 용
-----------	-----

조직의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복잡한 교육조직은 한정된 시간에 거대한 양의 문서정보를 갖게 되며 그것들을 읽고 확실히 하려면 자료를 종합하여 요약하게 되며 이러한 요약된 자료는 심각하게 잘못 이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선택적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개인적인 관심, 편견, 사회적 계층가치, 직업적 성향 등을 반영해 수신자가 보내는 정보들 속에서 이미 우리가 믿고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을 듣는 경향이 있다.
준거체계의 상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험과 가치관 등 서로 다른 준거체계가 존재함으로써 이것이 의사소통상에 장애를 일으킨다.
기호화와 해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화와 해독메세지의 과정은 항상 실패할 약점이 있다. 수신자는 부정확하게 메시지를 해독하고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언어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신자가 애매모호한 말이나 글을 사용한다든지 수신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학술용어나 기술용어를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다.
미소와 인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방해는 고의적이거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 혹은 더 이상의 이유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거나, 우리가 한 답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가 불필요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시지가 몇 사람을 걸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로 송신자가 고의로 의사소통의 내용을 일부 여과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며, 송신자가 전체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수신자에게 정보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용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자가 송신자의 메시지를 수용하려 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송신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신뢰성을 갖지 못할 때 일어난다.

출처: 노종희(1993: 332-334에서 재구성), Hanson. E. Mark(1991: 261-263재구성)

4)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형식적 의사소통, 일반적 의사소통, 쌍방향적 의사소통, 삼차원적 의사소통이 포함된다(김유진, 2017). 먼저 형식적 의사소통은 특별한 주제를 두고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을 이야

기 하는 것을 뜻하고, 비형식적 의사소통은 대화를 통해 간단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Spodek & Davis, 1991; 김유진, 2017: 12에서 재인용). 또한 일반적 의사소통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은 부모와 교사 간의 대화를 통해 영·유아의 정보나 발달, 또래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뜻한다(김유진, 2017). 삼차원적 의사소통은 영·유아의 발달이나 특정 문제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양자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와 부모뿐만 아니라 원장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 등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Ghazvini & Readdick, 1994; 김유진, 2017: 12에서 재인용).

부모와 교사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손영숙, 1995).

① 부모와 교사의 전화상담

Holden(1980)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전화상담은 부모와 교사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전화상담의 주목적은 어린이의 가족을 교사에게 소개하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의논하고 협력 관계를 만드는데 있다(김유진, 2017). 전화 상담인 경우 기록일자, 시간, 목적, 교사의 느낌 등 상담 내용의 모든 것이 상담기록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② 발달점검표와 관찰

발달점검표는 부모와 교사 모두 기재하며 교사는 발달점검표와 관찰을 토대로 부모들에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발달경험을 조직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유진, 2017). 또한 부모들이 작성한 발달점검표는 신뢰할 수 있으며 Knoblock & Pasamanick는 부모가 기록한 발달점검표의 80%가 정확하다고 보고 했다. 모든 점검표는 부모와 교사의 상담기록장에 정리되어야 하고 1년간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김유진, 2017).

③ 부모에게 보낸 인쇄물 및 평가 보고서

소식지, 메모, 일화기록, 교육활동 평가보고서는 어린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교

환수단이며 소식지는 새로운 소식, 메모, 향후 행사의 통보, 개인적 발달상황, 교육활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지사항을 포함한다(김유진, 2017). 가정으로 보내진 영유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일화기록은 부모와의 면담에서 상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배포된 정보는 부모와 교사의 상담기록장에 정리되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김유진, 2017).

④ 부모와 교사의 면담

면담은 정보를 교환하고 오해를 줄이게 하고 교사가 부모와 대면하여 앉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떤지를 이해하게 되며, 어떤 사항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문제점을 토론할 때 강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Rogers, 1989; 손영숙, 1995: 285에서 재인용). 교사의 태도와 적절한 목소리의 톤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Koulouras 외(1980)는 교사들이 전문용어로 내뱉을 때 위협을 느끼지만 평범한 말로 그들과 정보를 나누면 감사할 것이라고 했으며 “부모면담은 쌍방적 의사소통일 때는 성공적이지만 일방적인 제시는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하였다.

면담에서 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부모로부터 제공 받고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부모는 보육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과 영유아의 개별적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를 제공 받으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정보를 통해 어린이의 신체, 사회, 언어, 정서, 지적인 발달에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 받을 수 있다(Gelfer, 1991; 손영숙, 1995: 286에서 재인용).

나.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미자(2006)의 연구에서는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이야기 하며, 기호를 통해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전해주어 같은 의미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행동이라고 말하였다. 정윤귀(2006)는 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양육태도나 신념을 이해하고, 자신이 못 보는 공간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이란 어머니와 교사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를 함께 나누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김유진, 2017).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학습을 안내하고 조력하므로 중요하게 볼 수 있으며 (Bauch, 1997; 김유진, 2017: 11에서 재인용),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의 내용, 방법에 따라 구분한 Winkelstien(1981)의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 유형

유형	내용
사교적 의사소통	평소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정보적 의사소통	영·유아의 정보를 나누는 것
의사결정 의사소통	영·유아의 문제에 있어 결정하는 것

Minish(1986)는 유아, 성인, 가족, 일상에 관한 의사소통 빈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세 가지 의사소통 중 일상적 영역의 의사소통이 가장 자주 이루어진다고 한다. 위수정(2001)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주제를 크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 일상적인 의사소통, 유아에 대한 의사소통, 부모와 교사에 관한 의사소통, 가정이나 가족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관에 대한 의사소통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5가지 주제별 의사소통 중 특히 유아의 또래관계 및 일상생활과 식습관을 중점으로 한 유아에 대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위수정, 2001).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주로 영·유아와 관련된 주제로 가장 빈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주경, 1997).

다.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유아교육 전문가들은(Beger, 1987; Honig, 1979; Lepper, Witherspoon & Day, 1984)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교사들은 부모를 파트너

은 친구로 간주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가정과 함께 유아교육기관이 서로 협력 할 때 보다 발전적이며, 영유아를 위한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어린이집교사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생활 양쪽 모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손영숙, 1995).

1)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의 교육관의 차이

부모와 어린이집교사는 같은 영유아에 관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가 부모나 보육교사에게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해도 부모와 보육교사의 경험이 다르므로 영유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교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있는 부모와는 영유아 행동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손영숙, 1995).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부모는 어린이가 태어난 후의 발육상태를 상세히 알고 있고 특별한 사건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준 것도 기억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떻게 반응하는 지도 알고 있다(손영숙, 1995).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낯선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부모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또 그들의 자녀가 같은 연령의 다른 영유아들과 발달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다. 한편 보육교사도 영유아가 보육기관에 오기 전의 경험과 가정으로 돌아간 후의 경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부모와 보육교사는 한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도 가정에서의 습관이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보육기관과 달라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와 보육교사는 모두 영유아에게 어떠한 면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하며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관점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손영숙, 1995).

2)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가정과 기관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큰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유

진, 2017). Heinz(1979)는 가정과 기관이 연계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로 유아의 자아개념 증대하고, 두 번째로 유아의 동기가 가속화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취감이 향상되고 점차 증가하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연구는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 첫 번째로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은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교사 간의 교육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James, Hymes, 1956; 김유진, 2017:8에서 재인용)

인간 발달에 있어 영유아기는 빠른 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시기다(박영실, 1981). 생태학적 이론에 의하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은 환경적 구성요소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진다고 하였다(Bronfenbrenner, 1979; 김유진, 2017:9에서 재인용). 현대사회의 변화 즉,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 부모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영유아 교·보육 기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김유진, 2017). 따라서 미국의 전국유아교육협회 NAEYC(1998)는 가정과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이 기관과 가정에서 적절히 연계되지 않는다면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제한된다고 한다(이기숙, 1991; Howes, 1990; 김유진, 2017:9에서 재인용).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관점으로서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Gelfer, 1991; 손영숙, 1995:284에서 재인용).

- ① 가정에서의 경험과 유대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부모가 신체, 사회, 정서 그리고 인지 발달의 영역에서 어린이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③ 학부모를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도우며 평가하는데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가족에 대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다.
- ⑤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 어린이의 학습을 충실하게 하도록 부모를 격려할 수 있다.
- ⑥ 부모가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방법(의료서비스, 상담기법 등)을 배우게 한다.

- ⑦ 부모가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다양한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 ⑧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부모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교사는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좋은 교사와 부모의 협조관계는 상호간의 신뢰, 정직, 책임 그리고 신중한 의사소통으로서 시작한다(손영숙, 1995).

라.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부모는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민영현, 2016)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현정(2000)의 연구에서는 77.8%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재경(2014)은 부모가 지각하는 보육교사와의 어려움보다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부모와 교사 간에 있어 부모보다 교사가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손환희(2009)는 부모-교사간의 의사소통에서 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의 요인을 준거기준의 차이, 신뢰도의 결핍, 대인간의 감수성 부족, 부적합한 용어 사용, 시간의 압박, 분주함, 개인적 특성, 부모 교사의 태도 및 느낌, 한국의 의사소통문화 특징과 같이 9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교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어려움의 요인

구분	요인	내용
1	준거기준의 차이	대부분의 사람은 서로 다른 자기 뜻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해석하며, 내용이 자신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말함.

2	신뢰도의 결핍	신뢰도의 문제로 신뢰도의 정도가 낮을 때는 자기만의 선입견에 따라 내용을 왜곡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함.
3	대인간의 감수성 부족	타인의 감정, 정서, 욕구 등에 관해 관심이 없으면 공감하지 못하게 되며,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해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4	부적합한 용어의 사용	부모-교사간의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므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 말함.
5	시간의 압박	부모-교사간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서 많은 시간적 투자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자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6	분주함	부모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또는 교사의 많은 업무와 부모와의 의사소통까지 더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말함.
7	개인적인 특성	부모의 성격이나 배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말함.
8	부모 교사의 태도 및 느낌	의사소통 시 느끼는 단절감과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등 교사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쾌감, 이런 부분은 교사 자신에게도 더욱 부담감으로 느껴지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9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 특징	한국의 문화는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면이 있으며, 보이기 위한 체면 중심이며 형식적인 특성을 가진다.

출처: 손환희(2009: 24-29)와 민은경(2015: 17)에서 재정리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의 개인 변인으로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려움이 감소한다고 밝혔으며(장미아, 1996;

이효영, 2013),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경력 1년 미만의 보육교사는 가장 적었으며, 1~3년 경력 보육교사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는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점차 감소된다고 나타냈다(장미아, 1996; 이효영, 2013).

이외에도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과 관련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김보들맘, 신혜영(2000)의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가정과 기관 한쪽의 입장에 서만 강조하고 설득시키려 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황에서부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김경중 외, 2012)고 하였다.

2.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관계성

가. 관계성의 의미

사전적 의미로서 관계성이란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로서 상호적 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권미량·하연희, 2014). 관계성은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와 연결을 포함하는 타인지향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대상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만남의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고리라고 볼 수 있다(Buber, 1977; 권미량, 하연희, 2014:282에서 재인용). 관계적 도식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계성의 양상은 유대를 형성하여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Kohut, 1984; 권미량, 하연희, 2014:282에서 재인용). 즉 관계성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안정호·임지영, 2013)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현상적 성향이므로 그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에 대한 지각이 다양한 사회적 조절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미량·하연희, 2014).

나.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협력이 가져다주는 여러 이점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아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 맺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이경화,

2001). 그러나 교육은 매우 인간적인 파트너십을 요하는 활동으로 교사와 부모가 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Gestwicki, 2000; 이찬주, 2002:2에서 재인용) 이런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나타난다.

부모와 유아교사 관계를 보는 관점은 1960년대 보상적 관점에서 1970년대 의사소통적 관점, 1980년대 책임론적 관점, 1990년대 협력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져 왔으며(이찬주, 2002), 권미량·하연희(2014)의 연구에서 보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성은 다음의 <표 II-6>과 같다.

<표 II-6> 부모와 유아교사의 관계성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교사와의 관계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
1. 예쁘고 싹싹한 유아교사 이미지를 생각하다.	1. 부모가 시어머니 같은 부담으로 다가오다.
2. 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을 중시하다.	2. 부모의 신뢰가 교사를 웃게 하다.
3. 관심과 소통을 필요로 하다.	3. 예의 없는 관계로 피곤해하다.
4. 불안이 관계를 깨뜨리다.	4. 소통을 힘들어하다.
5. 교사의 훈육방법을 걱정하다.	5. 함께 돌봄을 필요로 하다.

출처: 권미량·하연희(2014: 287-296에서 재구성)

다. 관계성의 중요성

프뢰벨(Frebel, 1782-1852)은 자녀의 양육·교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원영, 1985). 유아교육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19세기 및 그 이전부터 싹 터, 20세기를 거쳐 다양화·체계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가정이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아교육계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유안진, 김연진, 1993; 이원영, 1985; 임재택, 1985)

1990년대에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협력적 관계를 맺을 때 유아교육의 제

주체인 유아와 교사 그리고 부모 모두가 이점을 얻게 된다는 연구(Dauber & Epstein, 1993; Epstein, 1993; Henderson, 1988; 이찬주, 2002:1에서 재인용)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고선옥, 2001; 김성영, 1998; 엄덕실, 2000; 오완숙, 1993; 이경화, 1992; 이혜심 1997)이 이루어져 왔다.

영유아의 적응에서 영유아와 교사의 관계성이나 부모와 교사간의 관계성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김윤숙·조희숙, 2011; 박은미·조복희, 2003)은 육아의 부담을 갖고 있는 부모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힘든 관계를 호소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Schaefer(1991)는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드러내고 있다.

생태학적 이론은 유아가 인접한 인적 환경인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간체계라고 보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미시체계인 유아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맥이 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권미량, 하연희, 2014: 283에서 재인용).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유아의 기관 적응이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들(Comer, 1988; Hara & Burke, 1998; 권미량, 하연희, 2014: 283에서 재인용)은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교사 간의 협력은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영유아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부모는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이는 일상생활과 또래관계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김유정·박지혜·안선희, 2012). 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의 가정환경, 가정에서의 보이는 모습, 개인적인 요구, 관심, 능력 등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아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아를 지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Lee & Moon, 2008; 김유정의 2, 2012: 73에서 재인용).

부모-교사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 및 교육기관 종사자의 태도나 신념이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몇몇 연구결과를 통해 보고되었다(Epstein & Danber, 1991; Hoover-Dempsey & Sandler, 1995; Swick & McKnight, 1989;

김유정의 2, 2012: 73에서 재인용). 협력적 접근의 핵심은 부모와 교사 간에 지지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으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쌍방 간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다(Minke & Anderson, 2005; Pianta, Kraft-Sayre, Rimm-Kaufman, Gercke, & Higgins, 2001; 김유정의 2012: 73에서 재인용). 교사는 가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관계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각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김유정 외, 2012). 교사가 부모와 자주 의사소통하고 반응적으로 그들을 대할 때, 부모는 교육기관 및 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게 되지만(Galindo & Sheldon, 2012; 김유정 외, 2012: 73에서 재인용),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 및 기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Bryan, 2005; 김유정 외, 2012: 73에서 재인용). 이처럼 부모-교사 간의 의사소통은 교사와 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관계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유정 외, 2012).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의사소통을 이루는 기관에 대해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교사의 의사소통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Rhee, Park, & Choi, 2003; 김유정의 2, 2012:73에서 재인용). 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와 돈독한 관계형성은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게 된다(김유정 외, 2012). 이렇듯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적인 관계형성은 부모로부터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성을 인식할 수 있고, 부모가 보이는 호응적인 태도로 인해 교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Swap, 1993; 김유정 외, 2012: 74에서 재인용).

라.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

교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의견 차이, 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교사의 교육적 신념, 또는 서로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박향아·제경숙, 2003). 또한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힘든 부분은 대인관계로 인한 것이며, 그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민영현, 2016).

Katz에 의하면 교사와 부모는 역할 차이를 지니며 각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이유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염지숙, 2015). 최서영과 이대균(2011)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부모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 요인으로 학부모 요구사항에 맞춤형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처신하도록 요구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보영과 김현주(2013)는 ‘교사-부모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연구에서 부모의 무관심, 냉담, 회피와 자녀 과잉보호에서 오는 요구, 교사 불신 등에서 심리적 갈등을 호소한다고 분석했다. 교사들은 부모와의 동등한 협력적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정하기 보다는 내면에 감추고 부모를 어려운 존재로 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김미향·이현진, 2016).

권미량·하연희(201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유아교사의 전문성이나 인성적 측면이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유아교사는 부모의 태도나 참여의 보완 등을 통한 관계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부모와 유아교사는 유아를 돌보는 본질적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역할 요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 있으며 이것이 부정적 관계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모와 유아교사가 모두 소통을 요구하고 있으나 또한 이러한 소통이 관계성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을 설정해보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의 어린이집 19개소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 <표 Ⅲ-1>와 같다.

<표 Ⅲ-1>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배경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경력	1년 미만	19	9.5
	1~3년 미만	30	14.9
	3~5년 미만	31	15.4
	5~10년 미만	65	32.3
	10년 이상	55	27.4
나이	25세 미만	34	16.9
	25~29세	45	22.4
	30~35세	52	25.9
	35~39세	42	20.9
	40세 이상	27	13.4
결혼유무	미혼	126	62.7
	기혼	74	36.8
합계	200	100.0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의 연령대는 30~35세가 25.9% 가장 많았으며, 25~29세 22.4%, 35~39세 20.9%, 25세 미만이 16.9%, 40세 이상이 13.4%로 가장 작다. 결혼 유무에 따른 응답자는 36.8%가 기혼이며 62.7%가 미혼으로 미혼 응답자가 많다.

교사경력으로는 5~10년 미만의 보육교사들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년 이상이 27.4%, 3~5년 미만이 15.4%, 1~3년 미만 14.9%이고 9.5%의 보육교사가 1년 미만으로 가장 작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보육교사와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문항과 내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영·유아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희동(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Endsley & Minish(1991)의 설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7개의 문항으로 수정·변형하여 구성하였다.

보육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의 의사소통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ethiem(1984)가 제작하고 위수정(2001)이 번안한 설문지와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Bienvenu(1971)가 제작하고 강경자(1996)가 번안한 설문지를 이은영(2012)이 수정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변형하여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관련된 24개의 문항과 부모-교사의 관계와 관련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도구의 구성 내용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나이, 결혼유무, 경력	3
의사소통 방법	부모와의 의사소통 횟수와 1회당 평균 소요시간,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선호하는 방법, 현재 학급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와 해결방법, 의사소통의 어려움해결방법에 대한 만족	7

의사소통 어려움	의사소통 시 부모의 태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모의 성향,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교사 개인 성향, 교사의 전문성,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장소의 부재 등	24
부모-교사 관계	정보공유, 정보추구, 상호관계 일상적 대화를 통한 신뢰감,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 사용, 전문가다운 모습 보여주기	9
합계		43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8년 3월 16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자는 사전에 유선으로 동의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또한 응답이 종료된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배부된 설문지의 총 수량은 200부이며 배부된 200부의 설문지 모두 수거되었으며 200부 모두 유효설문지로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수집 후 SPSS 21.0을 활용하여 각 문항별 기초통계량 분석,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인 Cronbach α 계수는 .865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설문결과분석은 기본적으로 문항별 기초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을 살펴보았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현재 교실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 소요시간, 방법 등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과 현재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이며 보육교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방법과 해결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의사소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1>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3~4회 정도	1달에 1~2회 정도	기타
경력	1년 미만	12	1	6	0	0
		63.2%	5.3%	31.6%	0.0%	0.0%
	1~3년 미만	15	2	13	0	0
		50.0%	6.7%	43.3%	0.0%	0.0%
	3~5년 미만	16	2	12	1	0
		51.6%	6.5%	38.7%	3.2%	0.0%
5~10년 미만	42	8	13	2	0	
	64.6%	12.3%	20.0%	3.1%	0.0%	
10년 이상	34	6	13	1	1	
	61.8%	10.9%	23.6%	1.8%	1.8%	
나이	25세 미만	18	3	13	0	0
		52.9%	8.8%	38.2%	0.0%	0.0%
	25~29세	27	4	14	0	0
		60.0%	8.9%	31.1%	0.0%	0.0%
	30~35세	34	4	13	1	0
		65.4%	7.7%	25.0%	1.9%	0.0%
35~40세	24	4	11	2	1	
	57.1%	9.5%	26.2%	4.8%	2.4%	
40세 이상	16	4	6	1	0	
	59.3%	14.8%	22.2%	3.7%	0.0%	

결혼	미혼	80	10	35	1	0
		63.5%	7.9%	27.8%	0.8%	0.0%
	기혼	39	9	22	3	1
		52.7%	12.2%	29.7%	4.1%	1.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연령과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매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유무에 따라서도 매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모든 연령, 경력,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3~4회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부모와 의사소통 시 1회당 소요시간

		5 미만	15~30분	30~45분	45~60분	1시간 이상
경력	1년 미만	18	0	0	0	1
		94.7%	0.0%	0.0%	0.0%	5.3%
	1~3년 미만	24	4	2	0	0
		80.0%	13.3%	6.7%	0.0%	0.0%
	3~5년 미만	28	3	0	0	0
		90.3%	9.7%	0.0%	0.0%	0.0%
5~10년 미만	61	3	0	1	0	
	93.8%	4.6%	0.0%	1.5%	0.0%	
10년 이상	51	4	0	0	0	
	92.7%	7.3%	0.0%	0.0%	0.0%	
나이	25세 미만	32	2	0	0	0
		94.1%	5.9%	0.0%	0.0%	0.0%
	25~29세	38	6	1	0	0
		84.4%	13.3%	2.2%	0.0%	0.0%
	30~35세	49	2	0	0	1
		94.2%	3.8%	0.0%	0.0%	1.9%
35~40세	38	3	0	1	0	
	90.5%	7.1%	0.0%	2.4%	0.0%	
40세 이상	25	1	1	0	0	
	92.6%	3.7%	3.7%	0.0%	0.0%	
결혼	미혼	113	11	1	0	1
		89.7%	8.7%	0.8%	0.0%	0.8%
	기혼	69	3	1	1	0
		93.2%	4.1%	1.4%	1.4%	0.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1회당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모든 연령과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5분미만의 시간동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유무에 따라서도 5분미만의 시간동안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연령, 경력,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의사소통 시 15~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 부모와 의사소통 시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SNS (: 카카오톡, 밴드)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	전화	개별면담 시 대화	기타
경력	1년 미만	0 0.0%	16 84.2%	2 10.5%	1 5.3%	0 0.0%
	1~3년 미만	0 0.0%	27 90.0%	2 6.7%	1 3.3%	0 0.0%
	3~5년 미만	0 0.0%	26 83.9%	5 16.1%	0 0.0%	0 0.0%
	5~10년 미만	1 1.5%	61 93.8%	3 4.6%	0 0.0%	0 0.0%
	10년 이상	0 0.0%	52 94.5%	3 5.5%	0 0.0%	0 0.0%
	25세 미만	0 0.0%	30 88.2%	3 8.8%	1 2.9%	0 0.0%
나이	25~29세	0 0.0%	40 88.9%	5 11.1%	0 0.0%	0 0.0%
	30~35세	1 1.9%	48 92.3%	2 3.8%	1 1.9%	0 0.0%
	35~40세	0 0.0%	41 97.6%	1 2.4%	0 0.0%	0 0.0%
	40세 이상	0 0.0%	23 85.2%	4 14.8%	0 0.0%	0 0.0%
	미혼	0 0.0%	114 90.5%	10 7.9%	2 1.6%	0 0.0%
결혼	기혼	1 1.4%	68 91.9%	5 6.8%	0 0.0%	0 0.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 대한 질문에는 모든 연령과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유무에 따라서도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연령, 경력,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률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 보육교사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

		SNS (: 카카오톡, 밴드)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	전화	개별면담 시 대화	기타
경력	1년 미만	1	13	1	4	0
		5.3%	68.4%	5.3%	21.1%	0.0%
	1~3년 미만	0	19	5	6	0
		0.0%	63.3%	16.7%	20.0%	0.0%
	3~5년 미만	0	19	12	0	0
		0.0%	61.3%	38.7%	0.0%	0.0%
5~10년 미만	3	51	9	2	0	
	4.6%	78.5%	13.8%	3.1%	0.0%	
10년 이상	1	42	10	2	0	
	1.8%	76.4%	18.2%	3.6%	0.0%	
나이	25세 미만	1	24	5	4	0
		2.9%	70.6%	14.7%	11.8%	0.0%
	25~29세	0	31	9	5	0
		0.0%	68.9%	20.0%	11.1%	0.0%
	30~35세	2	39	9	2	0
		3.8%	75.0%	17.3%	3.8%	0.0%
35~40세	2	30	9	1	0	
	4.8%	71.4%	21.4%	2.4%	0.0%	
40세 이상	0	20	5	2	0	
	0.0%	74.1%	18.5%	7.4%	0.0%	
결혼	미혼	2	89	23	12	0
		1.6%	70.6%	18.3%	9.5%	0.0%
	기혼	3	55	14	2	0
		4.1%	74.3%	18.9%	2.7%	0.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보육교사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미만의 보육교사들은 개별면담 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3년 이상의 보육교사들은 전화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보육교사들은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 순으로는 모든 연령의 보육교사들이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도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한다는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는 전화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현재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정도

		0%	20%	50% 미만	80% 미만	100%
경력	1년 미만	6	6	4	3	0
		31.6%	31.6%	21.1%	15.8%	0.0%
	1~3년 미만	3	21	6	0	0
		10.0%	70.0%	20.0%	0.0%	0.0%
	3~5년 미만	9	18	4	0	0
		29.0%	58.1%	12.9%	0.0%	0.0%
5~10년 미만	14	44	6	1	0	
	21.5%	67.7%	9.2%	1.5%	0.0%	
10년 이상	9	36	10	0	0	
	16.4%	65.5%	18.2%	0.0%	0.0%	
나이	25세 미만	8	16	8	2	0
		23.5%	47.1%	23.5%	5.9%	0.0%
	25~29세	8	30	6	1	0
		17.8%	66.7%	13.3%	2.2%	0.0%
	30~35세	9	35	7	1	0
		17.3%	67.3%	13.5%	1.9%	0.0%
35~40세	9	29	4	0	0	
	21.4%	69.0%	9.5%	0.0%	0.0%	
40세 이상	7	15	5	0	0	
	25.9%	55.6%	18.5%	0.0%	0.0%	
결혼	미혼	22	78	23	3	0
		17.5%	61.9%	18.3%	2.4%	0.0%
	기혼	19	47	7	1	0
		25.7%	63.5%	9.5%	1.4%	0.0%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평균적으로 몇 %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와 ‘20%미만’이라는 응답률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20%미만’의 응답률이 7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년 이상의 보육교사들도 ‘20%미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모든 연령의 보육교사들이 현재 학급에서 겪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모든 연령의 보육교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20%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미혼인 경우 61.9%, 기혼인 경

우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혼인 경우 '50%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18.3%로 높게 나타났고 기혼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률이 25.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 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삭힌다.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문제 부모의 아이에게 신경을 안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육아전문기관 등에 상담을 한다.	기타
경력	1년 미만	1	18	0	0	0	0
		5.3%	94.7%	0.0%	0.0%	0.0%	0.0%
	1~3년 미만	1	26	3	0	0	0
		3.3%	86.7%	10.0%	0.0%	0.0%	0.0%
	3~5년 미만	2	27	2	0	0	0
		6.5%	87.1%	6.5%	0.0%	0.0%	0.0%
	5~10년 미만	1	52	12	0	0	0
1.5%		80.0%	18.5%	0.0%	0.0%	0.0%	
10년 이상	1	39	12	1	2	0	
	1.8%	70.9%	21.8%	1.8%	3.6%	0.0%	
나이	25세 미만	3	29	2	0	0	0
		8.8%	85.3%	5.9%	0.0%	0.0%	0.0%
	25~29세	0	42	3	0	0	0
		0.0%	93.3%	6.7%	0.0%	0.0%	0.0%
	30~35세	1	40	10	1	0	0
		1.9%	76.9%	19.2%	1.9%	0.0%	0.0%
	35~40세	1	30	9	0	2	0
		2.4%	71.4%	21.4%	0.0%	4.8%	0.0%
	40세 이상	1	21	5	0	0	0
		3.7%	77.8%	18.5%	0.0%	0.0%	0.0%
결혼	미혼	5	106	14	1	0	0
		4.0%	84.1%	11.1%	0.8%	0.0%	0.0%
	기혼	1	56	15	0	2	0
		1.4%	75.7%	20.3%	0.0%	2.7%	0.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 미만의 경우 '혼자서 삭힌다'라는 응답률이 5.3%로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의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도 모든 연령의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5세 미만의 보육교사들은 '혼자서 삭

힌다'라는 응답률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상의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응답률이 미혼인 경우 84.1%, 기혼인 경우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7> 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력	1년 미만	4	6	8	0	1
		21.1%	31.6%	42.1%	0.0%	5.3%
	1~3년 미만	4	11	13	2	0
		13.3%	36.7%	43.3%	6.7%	0.0%
	3~5년 미만	2	16	12	1	0
		6.5%	51.6%	38.7%	3.2%	0.0%
5~10년 미만	9	38	17	1	0	
	13.8%	58.5%	26.2%	1.5%	0.0%	
10년 이상	4	30	19	2	0	
	7.3%	54.5%	34.5%	3.6%	0.0%	
나이	25세 미만	6	15	10	2	1
		17.6%	44.1%	29.4%	5.9%	2.9%
	25~29세	5	22	17	1	0
		11.1%	48.9%	37.8%	2.2%	0.0%
	30~35세	6	29	16	1	0
		11.5%	55.8%	30.8%	1.9%	0.0%
35~40세	3	26	12	1	0	
	7.1%	61.9%	28.6%	2.4%	0.0%	
40세 이상	3	9	14	1	0	
	11.1%	33.3%	51.9%	3.7%	0.0%	
결혼	미혼	16	65	39	5	1
		12.7%	51.6%	31.0%	4.0%	0.8%
	기혼	7	36	30	1	0
		9.5%	48.6%	40.5%	1.4%	0.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58.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도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54.5%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4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55.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61.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1.9%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48.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부모의 태도 및 성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교사 개인 성향 및 교사의 전문성,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과 장소의 부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8>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0	3	12	4	4.05	.621	1.033
		0.0	0.0	15.8	63.2	21.1			
	1~3년 미만	0	3	6	15	6	3.80	.887	
		0.0	10.0	20.0	50.0	20.0			
	3~5년 미만	0	3	8	15	5	3.71	.864	
		0.0	9.7	25.8	48.4	16.1			
5~10년 미만	2	3	10	36	14	3.88	.910		
	3.1	4.6	15.4	55.4	21.5				
10년 이상	2	6	9	31	7	3.64	.969		
	3.6	10.9	16.4	56.4	12.7				
나이	25세 미만	0	3	6	19	6	3.82	.834	1.139
		0.0	8.8	17.6	55.9	17.6			
	25~29세	0	3	6	26	10	3.96	.796	
		0.0	6.7	13.3	57.8	22.2			
	30~35세	1	5	13	25	8	3.65	.926	
		1.9	9.6	25.0	48.1	15.4			
	35~40세	1	3	5	24	9	3.88	.916	
		2.4	7.1	11.9	57.1	21.4			
	40세 이상	2	1	6	15	3	3.59	1.010	
		7.4	3.7	22.2	55.6	11.1			
결혼	미혼	1	10	23	65	27	3.85	.877	1.223
		0.8	7.9	18.3	51.6	21.4			

기혼	3	5	13	44	9	3.69	.920
	4.1	6.8	17.6	59.5	12.2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학부모인 경우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6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6.4%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8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9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6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8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5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8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6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경력, 나이, 결혼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늘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4	11	3	3.84	.765
		0.0	5.3	21.1	57.9	15.8		
	1~3년 미만	0	3	5	17	5	3.80	.847
		0.0	10.0	16.7	56.7	16.7		
	3~5년 미만	1	2	5	17	6	3.81	.946
		3.2	6.5	16.1	54.8	19.4		
	5~10년 미만	1	9	17	28	10	3.57	.968
		1.5	13.8	26.2	43.1	15.4		
	10년 이상	1	8	10	32	4	3.55	.899
		1.8	14.5	18.2	58.2	7.3		

나이	25세 미만	0	5	4	19	6	3.76	.923	1.361
		0.0	14.7	11.8	55.9	17.6			
	25~29세	1	2	9	23	10	3.87	.894	
		2.2	4.4	20.0	51.1	22.2			
	30~35세	1	7	17	21	6	3.46	.939	
		1.9	13.5	32.7	40.4	11.5			
	35~40세	0	5	9	24	4	3.64	.821	
		0.0	11.9	21.4	57.1	9.5			
	40세 이상	1	4	2	18	2	3.59	.971	
		3.7	14.8	7.4	66.7	7.4			
결혼	미혼	1	14	24	66	21	3.73	.898	1.426
		0.8	11.1	19.0	52.4	16.7			
	기혼	2	9	17	39	7	3.54	.924	
		2.7	12.2	23.0	52.7	9.5			

늘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사통 시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5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5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8.2%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7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4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6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5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6.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7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2.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5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0> 할머니(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	-----------------	-----------	----------	-----	-----------	----	----------	------

경력	1년 미만	2	3	10	3	1	2.89	.994	.769
		10.5	15.8	52.6	15.8	5.3			
	1~3년 미만	3	2	13	11	1	3.17	.986	
		10.0	6.7	43.3	36.7	3.3			
	3~5년 미만	2	5	11	8	5	3.29	1.131	
		6.5	16.1	35.5	25.8	16.1			
5~10년 미만	2	18	17	21	7	3.20	1.064		
	3.1	27.7	26.2	32.3	10.8				
10년 이상	1	8	21	21	4	3.35	.886		
	1.8	14.5	38.2	38.2	7.3				
나이	25세 미만	6	5	13	7	3	2.88	1.200	2.623*
		17.6	14.7	38.2	20.6	8.8			
	25~29세	1	6	18	14	6	3.40	.963	
		2.2	13.3	40.0	31.1	13.3			
	30~35세	2	14	17	15	4	3.10	1.015	
		3.8	26.9	32.7	28.8	7.7			
	35~40세	0	4	16	18	4	3.52	.804	
		0.0	9.5	38.1	42.9	9.5			
	40세 이상	1	7	8	10	1	3.11	.974	
		3.7	25.9	29.6	37.0	3.7			
결혼	미혼	8	23	45	38	12	3.18	1.046	-.685
		6.3	18.3	35.7	30.2	9.5			
	기혼	2	13	27	26	6	3.28	.944	
		2.7	17.6	36.5	35.1	8.1			

* $p < .05$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할아버지)가 영유아의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89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1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29로 35.5의 응답률이 3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2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35로 ‘보통이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8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4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1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2.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5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1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할아버지)가 영유아의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은 35세 이상의 교사들 보다 35세 이하의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어린 교사들은 연령이 많은 교사들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소통의 기회가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여 진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1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2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1> 교사를 비존중·무시하는 태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0	1	8	10	4.47	.612	1.938
		0.0	0.0	5.3	42.1	52.6			
	1~3년 미만	0	2	8	13	7	3.83	.874	
		0.0	6.7	26.7	43.3	23.3			
	3~5년 미만	0	3	7	14	7	3.81	.910	
		0.0	9.7	22.6	45.2	22.6			
5~10년 미만	3	8	10	25	19	3.75	1.146		
	4.6	12.3	15.4	38.5	29.2				
10년 이상	3	5	10	20	17	3.78	1.150		
	5.5	9.1	18.2	36.4	30.9				
나이	25세 미만	0	2	6	14	12	4.06	.886	1.431
		0.0	5.9	17.6	41.2	35.3			
	25~29세	0	6	6	20	13	3.89	.982	
		0.0	13.3	13.3	44.4	28.9			
	30~35세	3	4	12	18	15	3.73	1.140	
		5.8	7.7	23.1	34.6	28.8			
35~40세	1	2	7	18	14	4.00	.963		
	2.4	4.8	16.7	42.9	33.3				
40세 이상	2	4	5	10	6	3.52	1.221		
	7.4	14.8	18.5	37.0	22.2				
결혼	미혼	2	12	21	48	43	3.94	1.018	1.532
		1.6	9.5	16.7	38.1	34.1			
	기혼	4	6	15	32	17	3.70	1.082	
		5.4	8.1	20.3	43.2	23.0			

교사를 비존중하는 반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 대해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47

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8.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7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4%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4.0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8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7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4.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5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9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7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2> 암묵적인 태도로 불편함을 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2	7	9	4.26	.872	1.190
		0.0	5.3	10.5	36.8	47.4			
	1~3년 미만	1	2	5	13	9	3.90	1.029	
		3.3	6.7	16.7	43.3	30.0			
	3~5년 미만	1	2	7	15	6	3.74	.965	
		3.2	6.5	22.6	48.4	19.4			
5~10년 미만	1	6	15	28	15	3.77	.965		
	1.5	9.2	23.1	43.1	23.1				
10년 이상	3	4	11	24	13	3.73	1.079		
	5.5	7.3	20.0	43.6	23.6				
나이	25세 미만	1	2	6	13	12	3.97	1.029	.792
		2.9	5.9	17.6	38.2	35.3			
	25~29세	1	5	7	18	14	3.87	1.057	
		2.2	11.1	15.6	40.0	31.1			
	30~35세	2	3	14	23	10	3.69	.981	
		3.8	5.8	26.9	44.2	19.2			
	35~40세	1	2	7	21	11	3.93	.921	
		2.4	4.8	16.7	50.0	26.2			

	40세 이상	1 3.7	3 11.1	6 22.2	12 44.4	5 18.5	3.63	1.043	
결혼	미혼	4 3.2	8 6.3	29 23.0	46 36.5	39 31.0	3.86	1.033	.684
		2 2.7	7 9.5	11 14.9	41 55.4	13 17.6			
	기혼	4 3.2	8 6.3	29 23.0	46 36.5	39 31.0	3.76	.948	
		2 2.7	7 9.5	11 14.9	41 55.4	13 17.6			

부모가 표정이나 눈빛 등 암묵적인 태도로 불편함을 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26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7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6%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9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6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9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6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8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7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3> 다른 소리를 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0	5	8	6	4.05	.780	.227
		0.0	0.0	26.3	42.1	31.6			
	1~3년 미만	0	3	5	13	9	3.93	.944	
		0.0	10.0	16.7	43.3	30.0			
	3~5년 미만	0	3	7	14	7	3.81	.910	
		0.0	9.7	22.6	45.2	22.6			

	5~10년 미만	1	4	13	31	16	3.88	.910	
		1.5	6.2	20.0	47.7	24.6			
	10년 이상	2	4	9	24	16	3.87	1.037	
		3.6	7.3	16.4	43.6	29.1			
나이	25세 미만	0	1	9	14	10	3.97	.834	
		0.0	2.9	26.5	41.2	29.4			
	25~29세	0	4	7	20	14	3.98	.917	
		0.0	8.9	15.6	44.4	31.1			
	30~35세	1	4	11	27	9	3.75	.905	
		1.9	7.7	21.2	51.9	17.3			
	35~40세	1	2	6	19	14	4.02	.950	
		2.4	4.8	14.3	45.2	33.3			
	40세 이상	1	3	6	10	7	3.70	1.103	
		3.7	11.1	22.2	37.0	25.9			
결혼	미혼	1	8	29	51	37	3.91	.921	.448
		0.8	6.3	23.0	40.5	29.4			
	기혼	2	6	10	39	17	3.85	.961	
		2.7	8.1	13.5	52.7	23.0			

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 에 대한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6%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9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9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7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0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7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9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8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4> 교육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2	3	8	3	3	3.11	1.197	1.751
		10.5	15.8	42.1	15.8	15.8			
	1~3년 미만	0	5	13	10	2	3.30	.837	
		0.0	16.7	43.3	33.3	6.7			
	3~5년 미만	3	10	13	4	1	2.68	.945	
		9.7	32.3	41.9	12.9	3.2			
	5~10년 미만	2	16	24	19	4	3.11	.954	
		3.1	24.6	36.9	29.2	6.2			
	10년 이상	3	13	16	18	5	3.16	1.067	
		5.5	23.6	29.1	32.7	9.1			
나이	25세 미만	2	8	15	5	4	3.03	1.058	.192
		5.9	23.5	44.1	14.7	11.8			
	25~29세	3	10	17	12	3	3.04	1.021	
		6.7	22.2	37.8	26.7	6.7			
	30~35세	1	14	18	15	4	3.13	.971	
		1.9	26.9	34.6	28.8	7.7			
	35~40세	2	7	18	12	3	3.17	.961	
		4.8	16.7	42.9	28.6	7.1			
	40세 이상	2	8	6	10	1	3.00	1.074	
		7.4	29.6	22.2	37.0	3.7			
결혼	미혼	7	31	48	29	11	3.05	1.027	-.688
		5.6	24.6	38.1	23.0	8.7			
	기혼	3	16	26	25	4	3.15	.961	
		4.1	21.6	35.1	33.8	5.4			

영유아를 교육하는 데 있어 부모와 의견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11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3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6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11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1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2.7%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0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0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7.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1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4.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1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0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1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5.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5> 아버님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5	7	5	1	1	2.26	1.098	3.087*
		26.3	36.8	26.3	5.3	5.3			
	1~3년 미만	3	11	8	8	0	2.70	.988	
		10.0	36.7	26.7	26.7	0.0			
	3~5년 미만	5	10	13	3	0	2.45	.888	
		16.1	32.3	41.9	9.7	0.0			
	5~10년 미만	18	24	19	4	0	2.14	.899	
		27.7	36.9	29.2	6.2	0.0			
	10년 이상	7	17	20	9	2	2.67	1.019	
		12.7	30.9	36.4	16.4	3.6			
나이	25세 미만	7	13	8	5	1	2.41	1.076	3.413*
		20.6	38.2	23.5	14.7	2.9			
	25~29세	10	18	14	3	0	2.22	.876	
		22.2	40.0	31.1	6.7	0.0			
	30~35세	13	18	17	4	0	2.23	.921	
		25.0	34.6	32.7	7.7	0.0			
	35~40세	4	9	18	10	1	2.88	.968	
		9.5	21.4	42.9	23.8	2.4			
	40세 이상	4	11	8	3	1	2.48	1.014	
		14.8	40.7	29.6	11.1	3.7			
결혼	미혼	29	48	35	11	3	2.29	.997	-2.591*
		23.0	38.1	27.8	8.7	2.4			
	기혼	9	21	30	14	0	2.66	.926	
		12.2	28.4	40.5	18.9	0.0			

* p<.05

어머니가 아닌 아버님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2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7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4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

에서는 평균 2.6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4%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4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2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2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4.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8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48로 ‘대체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2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6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버님과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사 경력별, 연령별, 결혼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연령이 짧고 미혼이 교사에게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의 사회적인 변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싶다.

<표 IV-16>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3	9	6	4.05	.848
		0.0	5.3	15.8	47.4	31.6		
	1~3년 미만	0	3	6	14	7	3.83	.913
		0.0	10.0	20.0	46.7	23.3		
	3~5년 미만	2	3	7	15	4	3.52	1.061
		6.5	9.7	22.6	48.4	12.9		
5~10년 미만	2	6	15	32	10	3.65	.959	
	3.1	9.2	23.1	49.2	15.4			
10년 이상	2	6	10	26	11	3.69	1.034	
	3.6	10.9	18.2	47.3	20.0			
나이	25세 미만	0	4	6	15	9	3.85	.958
		0.0	11.8	17.6	44.1	26.5		
	25~29세	2	2	9	27	5	3.69	.900
		4.4	4.4	20.0	60.0	11.1		
	30~35세	2	4	11	25	10	3.71	.997
		3.8	7.7	21.2	48.1	19.2		

	35~40세	1	3	8	20	10	3.83	.961	
		24	7.1	19.0	47.6	23.8			
	40세 이상	1	6	7	9	4	3.33	1.109	
		3.7	22.2	25.9	33.3	14.8			
결혼	미혼	3	12	27	58	26	3.73	.975	.472
		24	9.5	21.4	46.0	20.6			
	기혼	3	7	14	38	12	3.66	.997	
		4.1	9.5	18.9	51.4	16.2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부모성향으로 인해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5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6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4%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8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6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7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8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3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3.3%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7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6.0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6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7>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1	2	8	7	1	3.26	.933	1.212
		5.3	10.5	42.1	36.8	5.3			
	1~3년 미만	0	4	14	9	3	3.37	.850	
		0.0	13.3	46.7	30.0	10.0			
	3~5년 미만	2	3	20	6	0	2.97	.752	

	5~10년 미만	6.5	9.7	64.5	19.4	0.0	3.06	1.029	
		4	16	21	20	4			
		6.2	24.6	32.3	30.8	6.2			
	10년 이상	2	10	18	19	6	3.31	1.016	
		3.6	18.2	32.7	34.5	10.9			
나이	25세 미만	1	7	15	9	2	3.12	.913	
		2.9	20.6	44.1	26.5	5.9			
	25~29세	4	4	25	11	1	3.02	.892	
		8.9	8.9	55.6	24.4	2.2			
	30~35세	3	13	15	16	5	3.13	1.085	
		5.8	25.0	28.8	30.8	9.6			
	35~40세	1	6	18	12	5	3.33	.954	
		24	14.3	42.9	28.6	11.9			
	40세 이상	0	5	8	13	1	3.37	.839	
		0.0	18.5	29.6	48.1	3.7			
	결혼	미혼	6	22	55	34	9	3.14	.953
			4.8	17.5	43.7	27.0	7.1		
기혼		3	13	26	27	5	3.24	.962	
		4.1	17.6	35.1	36.5	6.8			
								- .717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 부족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2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3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9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64.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0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3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4.5%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4.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0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1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0.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3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3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1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2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18> 교사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3	3	7	4	2	2.95	1.224	5.764***
		15.8	15.8	36.8	21.1	10.5			
	1~3년 미만	3	13	10	4	0	2.50	.861	
		10.0	43.3	33.3	13.3	0.0			
	3~5년 미만	8	14	8	1	0	2.06	.814	
		25.8	45.2	25.8	3.2	0.0			
	5~10년 미만	19	28	17	1	0	2.00	.791	
		29.2	43.1	26.2	1.5	0.0			
	10년 이상	9	29	15	2	0	2.18	.748	
		16.4	52.7	27.3	3.6	0.0			
나이	25세 미만	6	9	11	6	2	2.68	1.147	2.809*
		17.6	26.5	32.4	17.6	5.9			
	25~29세	11	20	11	3	0	2.13	.869	
		24.4	44.4	24.4	6.7	0.0			
	30~35세	11	23	17	1	0	2.15	.777	
		21.2	44.2	32.7	1.9	0.0			
	35~40세	7	24	11	0	0	2.10	.656	
		16.7	57.1	26.2	0.0	0.0			
	40세 이상	7	11	7	2	0	2.15	.907	
		25.9	40.7	25.9	7.4	0.0			
결혼	미혼	26	55	34	9	2	2.25	.920	.605
		20.6	43.7	27.0	7.1	1.6			
	기혼	16	32	23	3	0	2.18	.817	
		21.6	43.2	31.1	4.1	0.0			

* p<.05, *** p<.001

교사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9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18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2.7%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6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1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1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1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2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1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사 개인적인 성격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경력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에 따른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경험들이 교사의 개인적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표 IV-19>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3	3	7	4	2	3.32	1.293	12.445***
		15.8	15.8	36.8	21.1	10.5			
	1~3년 미만	3	13	10	4	0	3.07	.785	
		10.0	43.3	33.3	13.3	0.0			
	3~5년 미만	8	14	8	1	0	2.16	.820	
		25.8	45.2	25.8	3.2	0.0			
	5~10년 미만	19	28	17	1	0	2.12	.857	
		29.2	43.1	26.2	1.5	0.0			
	10년 이상	9	29	15	2	0	2.27	.732	
		16.4	52.7	27.3	3.6	0.0			
나이	25세 미만	2	9	10	9	4	3.12	1.122	6.354***
		5.9	26.5	29.4	26.5	11.8			
	25~29세	10	18	10	7	0	2.31	.996	
		22.2	40.0	22.2	15.6	0.0			
	30~35세	8	19	23	2	0	2.37	.793	
		15.4	36.5	44.2	3.8	0.0			
	35~40세	6	19	17	0	0	2.26	.701	
		14.3	45.2	40.5	0.0	0.0			
	40세 이상	8	10	7	2	0	2.11	.934	
		29.6	37.0	25.9	7.4	0.0			
결혼	미혼	21	45	41	16	3	2.48	.994	1.145
		16.7	35.7	32.5	12.7	2.4			
	기혼	13	30	26	4	1	2.32	.878	
		17.6	40.5	35.1	5.4	1.4			

*** p<.001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3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0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2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2.7%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1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3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3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2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48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3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사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경력과 연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이 쌓이고 의사소통 기술 또한 능숙해지게 되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고 보여 진다.

<표 IV-20>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1	3	9	4	2	3.16	1.015
		5.3	15.8	47.4	21.1	10.5		
	1~3년 미만	2	13	10	5	0	2.60	.855
		6.7	43.3	33.3	16.7	0.0		
	3~5년 미만	8	15	7	1	0	2.03	.795
		25.8	48.4	22.6	3.2	0.0		
5~10년 미만	16	26	22	1	0	2.12	.801	
	24.6	40.0	33.8	1.5	0.0			
10년 이상	10	30	14	1	0	2.11	.712	8.756***

		18.2	54.5	25.5	1.8	0.0					
나이	25세 미만	4	11	11	6	2	2.74	1.082	3.240*		
		11.8	32.4	32.4	17.6	5.9					
	25~29세	10	23	9	3	0	2.11	.832			
		22.2	51.1	20.0	6.7	0.0					
	30~35세	10	19	22	1	0	2.27	.795			
		19.2	36.5	42.3	1.9	0.0					
	35~40세	6	23	13	0	0	2.17	.660			
		14.3	54.8	31.0	0.0	0.0					
	40세 이상	7	11	7	2	0	2.15	.907			
		25.9	40.7	25.9	7.4	0.0					
	결혼	미혼	23	54	38	9	2	2.31		.907	.733
			18.3	42.9	30.2	7.1	1.6				
기혼		14	33	24	3	0	2.22	.798			
		18.9	44.6	32.4	4.1	0.0					

* p<.05, *** p<.001

교사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1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6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1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경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7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1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2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1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4.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7%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별인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3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2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사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해서는 교사 경력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들이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함께 전문가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가시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준다고 보여진다.

<표 IV-21>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관찰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3	4	6	3	3	2.95	1.311	5.989***
		15.8	21.1	31.6	15.8	15.8			
	1~3년 미만	2	14	9	5	0	2.57	.858	
		6.7	46.7	30.0	16.7	0.0			
	3~5년 미만	8	13	8	2	0	2.13	.885	
		25.8	41.9	25.8	6.5	0.0			
	5~10년 미만	19	30	13	2	1	2.02	.875	
		29.2	46.2	20.0	3.1	1.5			
	10년 이상	9	35	10	1	0	2.05	.650	
		16.4	63.6	18.2	1.8	0.0			
나이	25세 미만	7	10	9	5	3	2.62	1.231	2.805*
		20.6	29.4	26.5	14.7	8.8			
	25~29세	10	21	9	5	0	2.20	.919	
		22.2	46.7	20.0	11.1	0.0			
	30~35세	9	25	15	2	1	2.25	.860	
		17.3	48.1	28.8	3.8	1.9			
	35~40세	8	28	6	0	0	1.95	.582	
		19.0	66.7	14.3	0.0	0.0			
	40세 이상	7	12	7	1	0	2.07	.829	
		25.9	44.4	25.9	3.7	0.0			
결혼	미혼	23	54	38	9	2	2.30	.957	1.760*
		18.3	42.9	30.2	7.1	1.6			
	기혼	14	33	24	3	0	2.07	.816	
		18.9	44.6	32.4	4.1	0.0			

* p<.05, *** p<.001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나 이해부족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9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

만의 경우 평균 2.1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0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3.6%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6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2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2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1.9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0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3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0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나 이해부족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사 경력별, 연령별, 결혼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보육교사의 업무인 영·유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고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영·유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업무능력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계속되어 진다고 본다.

<표 IV-22> 대화 장소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6 31.6	7 36.8	5 26.3	0 0.0	1 5.3	2.11	1.049
	1~3년 미만	6 20.0	15 50.0	7 23.3	2 6.7	0 0.0	2.17	.834
	3~5년 미만	9 29.0	15 48.4	7 22.6	0 0.0	0 0.0	1.94	.727
	5~10년 미만	27 41.5	24 36.9	12 18.5	2 3.1	0 0.0	1.83	.840
	10년 이상	19 34.5	24 43.6	10 18.2	2 3.6	0 0.0	1.91	.823
	나이	25세 미만	11	15	7	0	1	1.97
								.274

		32.4	44.1	20.6	0.0	2.9			
	25~29세	15	21	7	2	0	1.91	.821	
		33.3	46.7	15.6	4.4	0.0			
	30~35세	17	18	15	2	0	2.04	.885	
		32.7	34.6	28.8	3.8	0.0			
	35~40세	13	21	8	0	0	1.88	.705	
		31.0	50.0	19.0	0.0	0.0			
	40세 이상	11	10	4	2	0	1.89	.934	
		40.7	37.0	14.8	7.4	0.0			
결혼	미혼	46	51	24	4	1	1.91	.867	-.709
		36.5	40.5	19.0	3.2	0.8			
	기혼	21	34	17	2	0	2.00	.794	
		28.4	45.9	23.0	2.7	0.0			

대화를 나눌 장소가 여의치 않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1.9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1.8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1.9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6%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1.9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1.9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0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4.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1.88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1.89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1.9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0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23> 과도한 업무와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	-----------	-----------	----------	-----	-----------	----	----------	------

		않다							
경력	1년 미만	7	2	9	0	1	2.26	1.147	1.380
		36.8	10.5	47.4	0.0	5.3			
	1~3년 미만	7	8	8	4	3	2.60	1.276	
		23.3	26.7	26.7	13.3	10.0			
	3~5년 미만	7	12	11	1	0	2.19	.833	
		22.6	38.7	35.5	3.2	0.0			
	5~10년 미만	15	26	20	3	1	2.22	.910	
		23.1	40.0	30.8	4.6	1.5			
	10년 이상	9	21	15	6	4	2.55	1.119	
		16.4	38.2	27.3	10.9	7.3			
나이	25세 미만	12	7	12	0	3	2.26	1.214	1.040
		35.3	20.6	35.3	0.0	8.8			
	25~29세	10	20	10	4	1	2.24	.981	
		22.2	44.4	22.2	8.9	2.2			
	30~35세	9	15	22	4	2	2.52	1.000	
		17.3	28.8	42.3	7.7	3.8			
	35~40세	5	20	10	4	3	2.52	1.065	
		11.9	47.6	23.8	9.5	7.1			
	40세 이상	9	7	9	2	0	2.15	.989	
		33.3	25.9	33.3	7.4	0.0			
결혼	미혼	32	43	40	6	5	2.28	1.025	-1.542
		25.4	34.1	31.7	4.8	4.0			
	기혼	13	26	23	8	4	2.51	1.076	
		17.6	35.1	31.1	10.8	5.4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적 압박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2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6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2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2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5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26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2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5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5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5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3.3%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28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5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5.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24> 부모와 영유아의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4	1	7	5	2	3.00	1.291	5.545***
		21.1	5.3	36.8	26.3	10.5			
	1~3년 미만	3	13	7	7	0	2.60	.968	
		10.0	43.3	23.3	23.3	0.0			
	3~5년 미만	9	13	8	1	0	2.03	.836	
		29.0	41.9	25.8	3.2	0.0			
	5~10년 미만	21	26	13	4	1	2.05	.959	
		32.3	40.0	20.0	6.2	1.5			
	10년 이상	8	33	11	3	0	2.16	.739	
		14.5	60.0	20.0	5.5	0.0			
나이	25세 미만	8	5	10	9	2	2.76	1.257	3.372*
		23.5	14.7	29.4	26.5	5.9			
	25~29세	13	18	7	6	1	2.20	1.079	
		28.9	40.0	15.6	13.3	2.2			
	30~35세	9	26	15	2	0	2.19	.768	
		17.3	50.0	28.8	3.8	0.0			
	35~40세	7	24	9	2	0	2.14	.751	
		16.7	57.1	21.4	4.8	0.0			
	40세 이상	8	13	5	1	0	1.96	.808	
		29.6	48.1	18.5	3.7	0.0			
결혼	미혼	31	47	30	15	3	2.30	1.045	.986
		24.6	37.3	23.8	11.9	2.4			
	기혼	14	39	16	5	0	2.16	.811	
		18.9	52.7	21.6	6.8	0.0			

* p<.05, *** p<.001

부모와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0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6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1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

왔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76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2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1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1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1.9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3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1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와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사 경력과 연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영·유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경력과 연령이 증가해도 똑같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보여 진다.

<표 IV-25>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과 부담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1	3	5	6	4	3.47	1.172
		5.3	15.8	26.3	31.6	21.1		
	1~3년 미만	2	7	13	7	1	2.93	.944
		6.7	23.3	43.3	23.3	3.3		
	3~5년 미만	6	10	12	3	0	2.39	.919
		19.4	32.3	38.7	9.7	0.0		
	5~10년 미만	19	21	19	5	1	2.20	1.003
		29.2	32.3	29.2	7.7	1.5		
	10년 이상	8	31	10	6	0	2.25	.844
		14.5	56.4	18.2	10.9	0.0		
나이	25세 미만	3	7	8	12	4	3.21	1.175
		8.8	20.6	23.5	35.3	11.8		
	25~29세	9	15	16	3	2	2.42	1.033
		20.0	33.3	35.6	6.7	4.4		
	30~35세	8	18	21	5	0	2.44	.873
		15.4	34.6	40.4	9.6	0.0		
	35~40세	8	22	8	4	0	2.19	.862
		19.0	52.4	19.0	9.5	0.0		
	40세 이상	8	10	6	3	0	2.15	.989
		29.6	37.0	22.2	11.1	0.0		

결혼	미혼	21	39	40	22	4	2.60	1.060	2.170*
		16.7	31.0	31.7	17.5	3.2			
	기혼	15	33	19	5	2	2.27	.955	
		20.3	44.6	25.7	6.8	2.7			

* p<.05, *** p<.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되며 부담스러운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4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9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39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2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2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6.4%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2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4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4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0.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1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2.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6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1.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2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되며 부담스러운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사 경력, 연령, 결혼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쌓인 의사소통의 경험들과 결혼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과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여진다.

<표 IV-26> 부모와 앞에서의 위축감

구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	-----------	-----------	----------	-----	-----------	----	----------	------

		않다							
경력	1년 미만	4	6	6	3	0	2.42	1.017	4.184**
		21.1	31.6	31.6	15.8	0.0			
	1~3년 미만	4	18	8	0	0	2.13	.629	
		13.3	60.0	26.7	0.0	0.0			
	3~5년 미만	10	17	3	1	0	1.84	.735	
		32.3	54.8	9.7	3.2	0.0			
	5~10년 미만	24	35	5	1	0	1.74	.668	
		36.9	53.8	7.7	1.5	0.0			
	10년 이상	12	33	9	1	0	1.98	.680	
		21.8	60.0	16.4	1.8	0.0			
나이	25세 미만	7	14	10	3	0	2.26	.898	3.038*
		20.6	41.2	29.4	8.8	0.0			
	25~29세	17	23	4	1	0	1.76	.712	
		37.8	51.1	8.9	2.2	0.0			
	30~35세	12	31	8	1	0	1.96	.685	
		23.1	59.6	15.4	1.9	0.0			
	35~40세	7	29	5	1	0	2.00	.625	
		16.7	69.0	11.9	2.4	0.0			
	40세 이상	11	12	4	0	0	1.74	.712	
		40.7	44.4	14.8	0.0	0.0			
결혼	미혼	35	67	22	2	0	1.93	.718	-.410
		27.8	53.2	17.5	1.6	0.0			
	기혼	19	42	9	4	0	1.97	.776	
		25.7	56.8	12.2	5.4	0.0			

* p<.05, ** p<.01

부모와 함께 있으면 위축 되는가?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4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1.8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1.7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1.98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2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1.7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1.9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0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9.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1.74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1.9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53.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1.9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사 경력과 연령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과 연령이 증가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과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력과 연령의 증가가 부모 앞에서 위축감에도 영향을 주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 준다고 보여 진다.

<표 IV-27> 부모가 영유아의 문제를 원장과 먼저 상의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2	7	8	2	0	2.53	.841	.172
		10.5	36.8	42.1	10.5	0.0			
	1~3년 미만	2	10	13	5	0	2.70	.837	
		6.7	33.3	43.3	16.7	0.0			
	3~5년 미만	4	15	5	5	2	2.55	1.121	
		12.9	48.4	16.1	16.1	6.5			
	5~10년 미만	13	18	17	13	4	2.65	1.192	
		20.0	27.7	26.2	20.0	6.2			
	10년 이상	8	23	12	10	2	2.55	1.068	
		14.5	41.8	21.8	18.2	3.6			
나이	25세 미만	4	11	15	3	1	2.59	.925	1.809
		11.8	32.4	44.1	8.8	2.9			
	25~29세	7	16	9	11	2	2.67	1.148	
		15.6	35.6	20.0	24.4	4.4			
	30~35세	5	19	16	8	4	2.75	1.082	
		9.6	36.5	30.8	15.4	7.7			
	35~40세	5	16	10	10	1	2.67	1.052	
		11.9	38.1	23.8	23.8	2.4			
	40세 이상	8	11	5	3	0	2.11	.974	
		29.6	40.7	18.5	11.1	0.0			
결혼	미혼	18	39	42	20	7	2.67	1.079	1.300
		14.3	31.0	33.3	15.9	5.6			
	기혼	11	34	13	15	1	2.47	1.023	
		14.9	45.9	17.6	20.3	1.4			

부모가 영 유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선생님과 먼저 상의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7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6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27.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5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1.8%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59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6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7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6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6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3.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4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28>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1	8	8	2	0	2.58	.769
		5.3	42.1	42.1	10.5	0.0		
	1~3년 미만	3	9	12	5	1	2.73	.980
		10.0	30.0	40.0	16.7	3.3		
	3~5년 미만	6	17	7	1	0	2.10	.746
		19.4	54.8	22.6	3.2	0.0		
5~10년 미만	19	28	17	0	1	2.02	.838	
	29.2	43.1	26.2	0.0	1.5			
10년 이상	9	24	18	4	0	2.31	.836	
	16.4	43.6	32.7	7.3	0.0			
나이	25세 미만	4	11	13	6	0	2.62	.922
		11.8	32.4	38.2	17.6	0.0		
	25~29세	9	27	7	1	1	2.07	.809
		20.0	60.0	15.6	2.2	2.2		
	30~35세	10	22	18	1	1	2.25	.860
		19.2	42.3	34.6	1.9	1.9		
35~40세	6	18	16	2	0	2.33	.786	
	14.3	42.9	38.1	4.8	0.0			
40세 이상	9	8	8	2	0	2.11	.974	
	33.3	29.6	29.6	7.4	0.0			
결혼	미혼	23	53	40	10	0	2.29	.859
		18.3	42.1	31.7	7.9	0.0		

	기혼	15	33	22	2	2	2.23	.900	
		203	446	29.7	2.7	2.7			

* p<.05, ** p<.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느냐? 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8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7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1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5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0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3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경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6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07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25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3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11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3.3%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별인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2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2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가와 관련하여 교사 경력과 연령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여도 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IV-29> 부모가 알지 못하는 영유아의 모습을 이야기 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1	7	7	3	1	2.79	.976	1.864
		5.3	36.8	36.8	15.8	5.3			
	1~3년 미만	2	8	8	11	1	3.03	1.033	
		6.7	26.7	26.7	36.7	3.3			
	3~5년 미만	5	10	13	3	0	2.45	.888	
		16.1	32.3	41.9	9.7	0.0			
	5~10년 미만	10	21	23	11	0	2.54	.953	
		15.4	32.3	35.4	16.9	0.0			
	10년 이상	7	15	19	13	1	2.75	1.022	
		12.7	27.3	34.5	23.6	1.8			
나이	25세 미만	2	12	11	8	1	2.82	.968	.480
		5.9	35.3	32.4	23.5	2.9			
	25~29세	9	12	16	7	1	2.53	1.057	
		20.0	26.7	35.6	15.6	2.2			
	30~35세	6	16	19	10	1	2.69	.981	
		11.5	30.8	36.5	19.2	1.9			
	35~40세	3	13	18	8	0	2.74	.857	
		7.1	31.0	42.9	19.0	0.0			
	40세 이상	5	8	6	8	0	2.63	1.115	
		18.5	29.6	22.2	29.6	0.0			
결혼	미혼	15	42	41	27	1	2.66	.973	-.397
		11.9	33.3	32.5	21.4	0.8			
	기혼	10	19	29	14	2	2.72	1.014	
		13.5	25.7	39.2	18.9	2.7			

부모가 알지 못하는 유아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 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느냐? 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7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0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4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7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4.5%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8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5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69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7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63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29.6%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66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3.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72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9.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0>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기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3	5	8	3	0	2.58	.961	2.928*
		15.8	26.3	42.1	15.8	0.0			
	1~3년 미만	1	8	11	9	1	3.03	.928	
		3.3	26.7	36.7	30.0	3.3			
	3~5년 미만	5	12	10	4	0	2.42	.923	
		16.1	38.7	32.3	12.9	0.0			
	5~10년 미만	7	18	21	17	2	2.83	1.039	
		10.8	27.7	32.3	26.2	3.1			
	10년 이상	5	9	20	17	4	3.11	1.066	
		9.1	16.4	36.4	30.9	7.3			
나이	25세 미만	3	13	9	9	0	2.71	.970	1.656
		8.8	38.2	26.5	26.5	0.0			
	25~29세	7	12	17	8	1	2.64	1.026	
		15.6	26.7	37.8	17.8	2.2			
	30~35세	5	10	20	14	3	3.00	1.048	
		9.6	19.2	38.5	26.9	5.8			
	35~40세	3	7	18	11	3	3.10	1.008	
		7.1	16.7	42.9	26.2	7.1			
	40세 이상	3	10	6	8	0	2.70	1.031	
		11.1	37.0	22.2	29.6	0.0			
결혼	미혼	11	32	47	33	3	2.88	.977	.556
		8.7	25.4	37.3	26.2	2.4			
	기혼	10	20	23	17	4	2.80	1.110	
		13.5	27.0	31.1	23.0	5.4			

* p<.05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기대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느냐? 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0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4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83

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11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4%로 가장 많았다. 교사 경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5년 미만의 교사들은 초임을 지나 교사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다고 보여 지는 시기이며 자신감 또한 높은 시기로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71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6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7.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0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1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7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7.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88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8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1> 의사소통 시 부모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한 어려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3	6	8	1	1	2.53	1.020	2.039*
		15.8	31.6	42.1	5.3	5.3			
	1~3년 미만	3	6	11	9	1	2.97	1.033	
		10.0	20.0	36.7	30.0	3.3			
	3~5년 미만	5	14	10	2	0	2.29	.824	
		16.1	45.2	32.3	6.5	0.0			
	5~10년 미만	9	20	27	6	3	2.60	.997	
		13.8	30.8	41.5	9.2	4.6			
	10년 이상	7	15	19	13	1	2.75	1.022	
		12.7	27.3	34.5	23.6	1.8			
나이	25세 미만	6	8	10	9	1	2.74	1.136	1.300
		17.6	23.5	29.4	26.5	2.9			
	25~29세	7	18	16	3	1	2.40	.915	
		15.6	40.0	35.6	6.7	2.2			
	30~35세	4	14	23	9	2	2.83	.944	
		7.7	26.9	44.2	17.3	3.8			

	35~40세	5	12	19	4	2	2.67	.979	
		11.9	28.6	45.2	9.5	4.8			
	40세 이상	5	9	7	6	0	2.52	1.051	
		18.5	33.3	25.9	22.2	0.0			
결혼	미혼	17	37	48	22	2	2.64	.975	.053
		13.5	29.4	38.1	17.5	1.6			
	기혼	10	24	27	9	4	2.64	1.041	
		13.5	32.4	36.5	12.2	5.4			

* $p < .05$

의사소통 시 부모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느냐? 는 질문에는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2.5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2.9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2.29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2.60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1.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2.75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4.5%로 가장 많았다. 교사 경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임시기를 지나서 교사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서 자신감 또한 높은 3~5년 미만의 교사들은 의사소통 시 부모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2.7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40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2.83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2.67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2.52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33.3%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2.6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2.64로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부모와의 관계형

성을 통해서 해결해보고자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며 관계 형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IV-32>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2	0	10	7	4.16	.898	1301
		0.0	10.5	0.0	52.6	36.8			
	1~3년 미만	0	1	7	16	6	3.90	.759	
		0.0	3.3	23.3	53.3	20.0			
	3~5년 미만	0	1	5	22	3	3.87	.619	
		0.0	3.2	16.1	71.0	9.7			
5~10년 미만	0	0	13	41	11	3.97	.612		
	0.0	0.0	20.0	63.1	16.9				
10년 이상	0	1	15	34	5	3.78	.629		
	0.0	1.8	27.3	61.8	9.1				
나이	25세 미만	0	3	2	20	9	4.03	.834	.951
		0.0	8.8	5.9	58.8	26.5			
	25~29세	0	1	9	25	10	3.98	.723	
		0.0	2.2	20.0	55.6	22.2			
	30~35세	0	1	14	33	4	3.77	.614	
		0.0	1.9	26.9	63.5	7.7			
35~40세	0	0	8	30	4	3.90	.532		
	0.0	0.0	19.0	71.4	9.5				
40세 이상	0	0	7	15	5	3.93	.675		
	0.0	0.0	25.9	55.6	18.5				
결혼	미혼	0	4	25	81	16	3.87	.662	-1.232
		0.0	3.2	19.8	64.3	12.7			
	기혼	0	1	15	42	16	3.99	.692	
		0.0	1.4	20.3	56.8	21.6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1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71.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7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1.8%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4.0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2.4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7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3.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9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7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3.9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4.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9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6.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3>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0	7	11	4.47	.772	.690
		0.0	5.3	0.0	36.8	57.9			
	1~3년 미만	0	0	3	14	13	4.33	.661	
		0.0	0.0	10.0	46.7	43.3			
	3~5년 미만	0	1	6	11	13	4.16	.860	
		0.0	3.2	19.4	35.5	41.9			
	5~10년 미만	0	0	8	25	32	4.37	.698	
		0.0	0.0	12.3	38.5	49.2			
	10년 이상	0	0	5	28	22	4.31	.635	
		0.0	0.0	9.1	50.9	40.0			
나이	25세 미만	0	1	2	14	17	4.38	.739	.349
		0.0	2.9	5.9	41.2	50.0			
	25~29세	0	1	7	13	24	4.33	.826	
		0.0	2.2	15.6	28.9	53.3			
	30~35세	0	0	8	24	20	4.23	.703	
		0.0	0.0	15.4	46.2	38.5			
	35~40세	0	0	1	24	17	4.38	.539	
		0.0	0.0	2.4	57.1	40.5			
	40세 이상	0	0	4	10	13	4.33	.734	
		0.0	0.0	14.8	37.0	48.1			
결혼	미혼	0	2	13	52	59	4.33	.727	.217
		0.0	1.6	10.3	41.3	46.8			
	기혼	0	0	9	33	32	4.31	.681	
		0.0	0.0	12.2	44.6	43.2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영유아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47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4.3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4.16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37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9.2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4.3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9%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4.38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4.33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5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4.2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3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33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4.33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6.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4.3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4> 영유아 교육에 부모와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1	8	9	4.32	.820
		0.0	5.3	5.3	42.1	47.4		
	1~3년 미만	0	0	5	12	13	4.27	.740
		0.0	0.0	16.7	40.0	43.3		
	3~5년 미만	0	0	4	15	12	4.26	.682
		0.0	0.0	12.9	48.4	38.7		
5~10년 미만	0	1	10	24	30	4.28	.781	
	0.0	1.5	15.4	36.9	46.2			
10년 이상	0	0	5	22	28	4.42	.658	
	0.0	0.0	9.1	40.0	50.9			
나이	25세 미만	0	1	2	16	15	4.32	.727
		0.0	2.9	5.9	47.1	44.1		
	25~29세	0	0	7	16	22	4.33	.739
		0.0	0.0	15.6	35.6	48.9		
	30~35세	0	1	9	22	20	4.17	.785
		0.0	1.9	17.3	42.3	38.5		
35~40세	0	0	3	19	20	4.40	.627	
	0.0	0.0	7.1	45.2	47.6			
40세 이상	0	0	4	8	15	4.41	.747	
	0.0	0.0	14.8	29.6	55.6			
결혼	미혼	0	2	14	52	58	4.32	.734
		0.0	1.6	11.1	41.3	46.0		

	기혼	0	0	11	29	34	4.31	.720	
		0.0	0.0	14.9	39.2	45.9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부모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32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4.27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4.2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28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4.42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50.9%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4.3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4.33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4.1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40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7.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41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4.32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6.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4.31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5> 일상적인 대화시도와 대화경험은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2	7	9	4.26	.872	
		0.0	5.3	10.5	36.8	47.4			
	1~3년 미만	0	1	7	11	11	4.07	.868	
		0.0	3.3	23.3	36.7	36.7			
	3~5년 미만	0	1	5	16	9	4.06	.772	
		0.0	3.2	16.1	51.6	29.0			
5~10년 미만	0	0	13	26	26	4.20	.754		
	0.0	0.0	20.0	40.0	40.0				
10년 이상	0	1	5	28	21	4.25	.700		
	0.0	1.8	9.1	50.9	38.2				
나이	25세 미만	0	2	4	16	12	4.12	.844	.504

	25~29세	0.0	5.9	11.8	47.1	35.3	4.24	.857		
		0	1	9	13	22				
	30~35세	0.0	2.2	20.0	28.9	48.9	4.08	.710		
		0	0	11	26	15				
	35~40세	0.0	0.0	21.2	50.0	28.8	4.26	.665		
		0	1	2	24	15				
	40세 이상	0	0	6	9	12	4.22	.801		
		0.0	0.0	22.2	33.3	44.4				
	결혼	미혼	0	4	20	55	47	4.15		.801
			0.0	3.2	15.9	43.7	37.3			
		기혼	0	0	12	33	29	4.23		.713
			0.0	0.0	16.2	44.6	39.2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시도와 대화경험이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가?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26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7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20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4.2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9%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4.1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4.24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4.0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2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22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44.4%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4.1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4.2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6>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경험이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관계에 도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	-----------	--------	-------	-----	--------	----	------	------

		않다									
경력	1년 미만	0	0	4	8	7	4.16	.765	1.103		
		0.0	0.0	21.1	42.1	36.8					
	1~3년 미만	0	1	8	15	6	3.87	.776			
		0.0	3.3	26.7	50.0	20.0					
	3~5년 미만	0	1	8	13	9	3.97	.836			
		0.0	3.2	25.8	41.9	29.0					
	5~10년 미만	0	0	11	32	22	4.17	.698			
		0.0	0.0	16.9	49.2	33.8					
	10년 이상	0	1	8	30	16	4.11	.712			
		0.0	1.8	14.5	54.5	29.1					
	나이	25세 미만	0	1	5	19	9	4.06		.736	.309
			0.0	2.9	14.7	55.9	26.5				
25~29세		0	1	13	13	18	4.07	.889			
		0.0	2.2	28.9	28.9	40.0					
30~35세		0	0	12	28	12	4.00	.686			
		0.0	0.0	23.1	53.8	23.1					
35~40세		0	1	4	24	13	4.17	.696			
		0.0	2.4	9.5	57.1	31.0					
40세 이상		0	0	5	14	8	4.11	.698			
		0.0	0.0	18.5	51.9	29.6					
결혼		미혼	0	3	26	61	36	4.03	.769	-1.075	
			0.0	2.4	20.6	48.4	28.6				
	기혼	0	0	13	37	24	4.15	.696			
		0.0	0.0	17.6	50.0	32.4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경험이 이후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관계에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1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1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9.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4.1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4.5%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4.0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4.0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0~35세의 경우 평균 4.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1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1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9%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4.0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4%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4.1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7> 부모와 의사소통 경로의 다양성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4	7	7	4.05	.911	1.515
		0.0	5.3	21.1	36.8	36.8			
	1~3년 미만	1	2	9	15	3	3.57	.898	
		3.3	6.7	30.0	50.0	10.0			
	3~5년 미만	1	1	8	16	5	3.74	.893	
		3.2	3.2	25.8	51.6	16.1			
	5~10년 미만	0	0	20	30	15	3.92	.735	
		0.0	0.0	30.8	46.2	23.1			
	10년 이상	0	1	16	26	12	3.89	.762	
		0.0	1.8	29.1	47.3	21.8			
나이	25세 미만	2	1	8	16	7	3.74	1.024	.709
		5.9	2.9	23.5	47.1	20.6			
	25~29세	0	1	15	19	10	3.84	.796	
		0.0	2.2	33.3	42.2	22.2			
	30~35세	0	0	17	27	8	3.83	.678	
		0.0	0.0	32.7	51.9	15.4			
	35~40세	0	3	10	21	8	3.81	.833	
		0.0	7.1	23.8	50.0	19.0			
	40세 이상	0	0	7	11	9	4.07	.781	
		0.0	0.0	25.9	40.7	33.3			
결혼	미혼	2	2	32	64	26	3.87	.810	.633
		1.6	1.6	25.4	50.8	20.6			
	기혼	0	3	25	30	16	3.80	.827	
		0.0	4.1	33.8	40.5	21.6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한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5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5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3.8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3%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7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8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8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3.8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0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7%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8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8>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 선택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2	3	9	5	3.89	.937	1.569
		0.0	10.5	15.8	47.4	26.3			
	1~3년 미만	0	1	9	18	2	3.70	.651	
		0.0	3.3	30.0	60.0	6.7			
	3~5년 미만	0	1	6	18	6	3.94	.727	
		0.0	3.2	19.4	58.1	19.4			
	5~10년 미만	0	0	11	39	15	4.06	.634	
		0.0	0.0	16.9	60.0	23.1			
	10년 이상	0	0	11	32	12	4.02	.652	
		0.0	0.0	20.0	58.2	21.8			
나이	25세 미만	0	3	9	16	6	3.74	.864	2.243*
		0.0	8.8	26.5	47.1	17.6			
	25~29세	0	1	7	28	9	4.00	.674	
		0.0	2.2	15.6	62.2	20.0			
	30~35세	0	0	16	27	9	3.87	.687	
		0.0	0.0	30.8	51.9	17.3			
	35~40세	0	0	3	29	10	4.17	.537	
		0.0	0.0	7.1	69.0	23.8			
	40세 이상	0	0	5	16	6	4.04	.649	
		0.0	0.0	18.5	59.3	22.2			
결혼	미혼	0	3	23	78	22	3.94	.673	-.413
		0.0	24	18.3	61.9	17.5			
	기혼	0	1	17	38	18	3.99	.731	
		0.0	14	23.0	51.4	24.3			

* p<.05

부모와 나누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를 선택하고 있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

답률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8.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6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 서는 평균 4.0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8.2%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7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4.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8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1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9.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0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3%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의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부모와 나누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9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1.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3.9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39> 교사의 전문가다운 모습에 신뢰감 형성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2	3	9	5	3.89	.937
		0.0	10.5	15.8	47.4	26.3		
	1~3년 미만	0	1	9	17	3	3.73	.691
		0.0	3.3	30.0	56.7	10.0		
	3~5년 미만	0	1	7	16	7	3.94	.772
		0.0	3.2	22.6	51.6	22.6		
5~10년 미만	0	0	13	29	23	4.15	.734	
	0.0	0.0	20.0	44.6	35.4			
10년 이상	0	1	7	30	17	4.15	.705	
	0.0	1.8	12.7	54.5	30.9			
나이	25세 미만	0	1	9	17	7	3.88	.769
		0.0	2.9	26.5	50.0	20.6		
	25~29세	0	3	7	22	13	4.00	.853
		0.0	6.7	15.6	48.9	28.9		
	30~35세	0	0	14	25	13	3.98	.727
		0.0	0.0	26.9	48.1	25.0		
35~40세	0	0	4	24	14	4.24	.617	
	0.0	0.0	9.5	57.1	33.3			

	40세 이상	0 0.0	1 3.7	5 18.5	13 48.1	8 29.6	4.04	.808	
결혼	미혼	0	3	24	66	33	4.02	.743	-.151
		0.0	2.4	19.0	52.4	26.2			
	기혼	0	2	15	35	22	4.04	.784	
		0.0	2.7	20.3	47.3	29.7			

* p<.05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되는가? 의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9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7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1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4.1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4.5%로 가장 많았다. 교사 경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력의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8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4.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98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2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0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1%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4.0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2.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4.0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IV-40> 전문가다운 모습이 문제해결에 도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 차	차이검증
경력	1년 미만	0	1	4	10	4	3.89	.809	.844
		0.0	5.3	21.1	52.6	21.1			

	1~3년 미만	0	1	7	18	4	3.83	.699	
		0.0	3.3	23.3	60.0	13.3			
	3~5년 미만	0	1	9	15	6	3.84	.779	
		0.0	3.2	29.0	48.4	19.4			
	5~10년 미만	0	0	17	28	20	4.05	.759	
		0.0	0.0	26.2	43.1	30.8			
	10년 이상	0	1	8	34	12	4.04	.666	
		0.0	1.8	14.5	61.8	21.8			
나이	25세 미만	0	0	9	19	6	3.91	.668	
		0.0	0.0	26.5	55.9	17.6			
	25~29세	0	3	8	23	11	3.93	.837	
		0.0	6.7	17.8	51.1	24.4			
	30~35세	0	0	16	24	12	3.92	.737	
		0.0	0.0	30.8	46.2	23.1			
	35~40세	0	0	7	25	10	4.07	.640	
		0.0	0.0	16.7	59.5	23.8			
	40세 이상	0	1	5	14	7	4.00	.784	
		0.0	3.7	18.5	51.9	25.9			
결혼	미혼	0	3	27	70	26	3.94	.719	-.517
		0.0	2.4	21.4	55.6	20.6			
	기혼	0	1	18	35	20	4.00	.759	
		0.0	1.4	24.3	47.3	27.0			

부모에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평균 3.9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5년 미만의 경우 평균 3.8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0년 미만의 경우 평균 4.05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평균 4.0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61.8%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의 경우 평균 3.91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평균 3.93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0~35세의 경우 평균 3.92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6.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5~40세의 경우 평균 4.07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의 경우 평균 4.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1.9%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인 경우 평균 3.94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평균 4.00로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과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관계성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설문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살펴보기에 앞서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과 방법 그리고 현재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52.9%의 보육교사들이 매일, 5분미만의 시간(90.5%) 동안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며 등·하원 시 개인알림장과 수첩 등 간단한 대화(71.6%)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고 현재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62.2%의 보육교사들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0.6%의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통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50.2%의 보육교사들이 현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둘째,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부모의 태도 및 성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교사 개인 성향 및 교사의 전문성,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과 장소의 부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경력, 나이, 결혼유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해결해보고자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며 관계형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시도와 대화경험이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가?’의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경험

이 이후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관계에 도움을 주는가?’의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되는가?’의 질문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관계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교사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린이집교사들이 교사-부모간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어린이집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의 차이는 경력, 연령, 결혼 유무의 순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대상의 보육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경력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토대로 의사소통 기술이 더 나아질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를 보이며, 경력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통한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기술 습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에 차이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해 살펴보면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나타나는 어려움의 하위영역 중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 교사 자신과 관련된 어려움,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려움

중에서 교사 자신과 관련된 어려움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에는 교사부모의 태도 및 성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된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과 장소의 부재 등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 대상의 보육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교사 개인 성향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의 수준에서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은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셋째, 보육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인 보육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유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보육교사와 부모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영유아의 교육에 부모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경험이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일상적인 부모와의 대화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부모와의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관계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는 부모는 교사로부터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과 양육기술을 제공받기를 기대하며 교사는 부모의 이러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교사 자신과 관련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점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교사의 전문가다운 모습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대상 보육교사들은 매일 5분이하의 간단한 대화와 보육수첩의 기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료교사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

려움은 교사 개인 성향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형성에서도 일상적인 대화의 경험과 함께 교사의 전문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보육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부모와의 관계형성 즉,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교사의 전문가다운 모습을 통해 부모의 신뢰감을 얻음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3. 제언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교사와 관련된 어려움과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변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영역에 사회적인 요인도 포함시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아보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교사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도움을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선옥(200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 및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량·하연희(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281-302
- 김경중, 고선옥, 박미희, 신리행, 유현숙(2012). **부모교육**. 서울; 공동체
- 김보들맘·신혜영(2000).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53-276
- 김성영(1998).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부모참여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정·박지혜·안선희(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5(33), 71-89
- 김유진(2017). 영유아 교사가 인식한 교사-부모간의 의사소통에 관한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조희숙(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1(6), 212-146
- 김현정(2000). 공립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현장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동(1994). 유치원 생활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 어머니와 교사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종희(1993). **교육행정학: 이론과 연구**, 서울: 문음사
- 민은경(2015).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과 부모-교사 의사소통간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현(2016).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정서노동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실(1981). 유아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조복희(2003). 3세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7(2), 207-234
- 박향아·제경숙(2003). 유아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한일비교연구. **교육**

이론과 실천, 12(3), 67-80

- 배을미·조유진(2014). 유아교사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연구: 의사소통 어려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1), 323-340
- 서영희·권미량·김은주(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인식과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6), 33-57
- 서재경(2014). 학부모 및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보육교사-학부모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려움과 보육교사 효능감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숙(1995).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유아교육을 중심으로. **경남전문대학논문집**, 23(1), 279-288
- 손환희(2009).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환희·정계숙(201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213-232
- 안정호·임지영(2013). 개별성-관계성 및 인지적 유연성과 팀 창의성의 관계: 설계 관련 교과목의 협동학습 사례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6(4), ?
- 엄덕실(2000). 부모참여에 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기대.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영(2012). 장애 유아 통합환경에서 일반교사 특수교사 간의 협력,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완숙(1993). 부모참여와 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의 인식에 관한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위수정(2001). 유치원에서의 어머니, 교사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김연지(1993).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경화(2001), 부모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이야기. **교육인류학연구** 4(3), 179-199
- 이기숙(1991).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미자(2006). 교사-어머니 의사소통과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5).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은주(2007), 교사의 대인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일반**, 15(2), 109-138

- 이주경(1997). 유치원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주(2002). 어머니-유아교사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영(2013).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수준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심(1997). 유치원교육에서 부모참여 실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경임(2010), 부모의 비협조적인 가치태도가 보육교사의 직무효능감과 교사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윤리교육학회**, 21(4), 185-200
- 임재택(1985). **유치원 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 장미아(1996).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귀(2006).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교사 간 의사소통 내용과 방법의 현황, 반죽도 및 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ger, E, H(1987). *Parent as Partnershis in education: The schools and home working together(2nd ed)*, Columbus, OH: Merrill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 J. (2005). Fostering educational resilience and achievement in urban through school-family-community partnerships. *Pro-fessional School Couseling*, 8, 219-227
- Buber, M(1977). **현대철학의 근본조류**[Landgerbe Philosophic de Gegenwart]. (최동역 역). 서울: 법문사. (원문은 1961에 출판)
- Comer, J. P(1988), Educationg poor minority children. *Scientific American*, 259(5), 42-49
- Dauber, S. L., & Epstein, H, L. (1993) *Parents' attitudes and practices of involvement in inner-c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N. F. Chavkin(Ed), *Families and schools in a pluralistic society*.(53-71), Albany, NY: SUNY.
- Endsley, R., & Minish, P. (1991). Pairent-Staff Communication in Day Care

- Centers during Morning and Afternoon Transi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119-135
- Epstein, J. L., & Danber, S. L. (1991). School programs and teacher practices of parent involvement in inner-c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lementary School Journal*, 91, 289-305.
- Epstein, J.L. (1993). *Theory practice: School and family partnership leads to school improvement and student success*. In C. L. Fagnano & B. Z. Werber(Eds.), *School, family, and community interaction*(pp.39-52), Bulder, CO: Westview.
- Galindo, C., & Sheldon, S. B. (2012). School and home connections and children's kindergarten achievement gain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invol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1), 90-103.
- Gelfer, J. I.(1991). Teacher-Parent Partnerships : Enhancing Communication, *Childhood Education*, 67(3), PP.164-167
- Gestwicki, C. (2000). *Hom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 A Guide to Working with Families*. Central Piedmont Community College: Charlotte, North Carolina.
- Ghazvini, A. & Readdick, C. (1994). Parent-caregiver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care in diverse child care sett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207-222.
- Hanson, E. Mark,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Allyn and Bacon, 1991
- Hara, S. R. & Burke, D. J(1998). Parents involvement: The key to improved student achievement. *School Community Journal*, 8(2), 9-19
- Heinz R. S.(1979). *Practical methods of Parent involve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188-776.
- Henderson(1988). Parents are a school's best friends. *Phi Delta Kappan*, 70, 148-153.
- Honig, A(1979). *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1995).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Why does it make a difference? *Teachers College Record*, 97, 310-331.

- Howes, C., & Hamilton, C. E.(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changes in teacher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5
- James, L. Hymes, Jr. (1956). *Effective home-school relations*. N. J : Prentice Hall, Inc.
- Kohut, H.(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ulouras, k, M.L. Porter, & S. Senter(1986). Making the Most of Parent Conferences, *Child Care information Exchange*, Vo.50, 5
- Lee, M. J., & Moon, H. J. (2008). Teacher- mother communication: Its effect on satisfa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1-14.
- Lepper, S.H, R.H. Witherspoon, & B. Day(1984). *Good schools for young children(5th ed)*, New Yock: Macmillan
- Minish, P.S. (1986). Developing an instrument to assess parent-caregiver communication during morning and afternoon transition times in day care centers. ERIC. ED. 143-430
- Minke, J. M., & Anderson, K. J. (2005). Family-school collaboration and positive behavior support.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7(3), 181-185.
- Pianta, R. C., Kraft-Sayre, M., Rimm-Kaufman, S., Gercke, N., & Higgins, T. (2001). Collaboration in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families and schools: The National Center for Early Development and Learning's Kindergarten Transition Interven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117-132.
- Rhee, U., Park, J. & Choi, H. Y., (2003).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developmental test for toddlers and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73-88.
- Rogers, L, B(1989). Reporting to Parents Through Conferences, *Day Care and Early Education*, 1(17), 30-31
- Schaefer, E. S.(1991). Goals for parent and future-parent education: research on parental belief and behavior. *Elementary School Journal*, 91(3), 239-248

- Spodek, B. Sarddcho, O.N., & Davis, M. D. (1991). "Found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역). 서울: 양서원. (원저, 1987 출판)
- Swap, S. M. (1993). *Developing home-school partnerships : From concepts to practice*.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Swick, K. J., & Mcknight, S. (1989).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eachers who promote parent invol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1), 19-29.
- Winkelstien, E. (1981). Parent-teacher involvement benefit everyon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73, 121-131

【Abstract】

**The Building-up of Relatednes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Parents**

Lee, Mi-Gyeo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ways and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Jeju city and the parents in order to identify difficulties arising therein, and then to set up relatedness after analyzing the issues concerned. The research problems for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do the difficulties that are perceived by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arising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s show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actors of nursing teachers?

Second, what sorts of difficulties are revealed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s?

Third, in what way do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terpret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a method of questionnaire was employed. The aim of the questionnaire is to examine current states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s, and measure the degrees of relations within the difficulties with application of relevant scal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applied in the precedent researches, the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was revised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00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18 day care centers in Jeju city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estionnaire was delivered in person to day care centers and distributed and then collected on the spot.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SPSS 21.0. The analysis results included basic statistics analysis by individual questions, difference verification by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cation difficult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nursing teacher's background factors such as career, age and marital status. Second, difficulties arising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s had more to do with nursing teacher's internal factors rather than external ones relative to the children's parents. Thir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showed agreement to the fact that clos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made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s and that accumulation of daily conversation on the children's life at the day care centers helps form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difficulties

emerging between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s can be resolved in two ways. The one way is to building up desirabl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through steady everyday conversations with the parents. In the other way,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need to show professionalism as a teacher during the communication, which eventually will help constitute positive relationship based on trust toward the teachers.

Key words: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parents, communication, relatedness, child care center

[부록]

<설문지>

본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및 제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인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 중 하나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정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집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로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소중한게 활용될 것이오니, 솔직하고 정확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석사과정 이미경
지도교수 김대영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나이 | ① 25세 미만 | ② 25~29세 | ③ 30~35세 |
| | ④ 35~49세 | ⑤ 50세 이상 | |
| 결혼유무 | ① 미혼 | ② 기혼 | |
| 교사경력 | ① 1년 미만 | ② 1~3년 미만 | ③ 3~5년 미만 |
| | ④ 5~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 |

다음은 교사-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 | | |
|--|---|
| 1. 부모와 의사소통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 | 1. 매일
2. 일주일에 1회
3. 일주일에 3~4회 정도
4. 1달에 1~2회 정도
5. 기타 _____ |
| 2.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때 1회당 소요되는 시간은? | 1. 15분 미만
2. 15~30분
3. 30~45분
4. 45~60분
5. 1시간 이상 |
| 4.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 1. 이메일이나 SNS(예: 카카오톡, 밴드)
2. 자녀의 등하원시 개인알림장, 수첩 등 간단한 대화
3. 전화
4. 개별 면담 시 대화
5. 기타 _____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
| 5. 현재 선생님의 학급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평균적으로 몇 %가 해당 됩니까? | 1. 0%
2. 20% 미만
3. 50% 미만
4. 80% 미만
5. 100% |

6. 선생님께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혼자 생각한다.
 2. 동료교사나 선배교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3.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4. 문제 부모의 아이에게 신경을 안쓴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육아전문 기관 등에 상담을 구한다.
 6. 기타(_____)
7. 선생님께서 부모와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부모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학부모인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9. 늘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0.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할아버지)가 영유아의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11. 교사를 비존중하는 반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2. 부모가 표정이나 눈빛 등 암묵적인 태도로 불편함을 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13. 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14. 영유아를 교육하는 데 있어 부모와 의견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어머니가 아닌 아버님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16.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부모성향으로 인해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낀다.					
17.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 부족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18. 나의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					
19. 나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20. 나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21. 나의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나 이해부족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22. 대화를 나눌 장소가 여의치 않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23.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적 압박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24. 나는 부모와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25.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긴장되며 부담스럽다.					
26. 부모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27. 부모가 영유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선생님과 먼저 상의할 경우 어려움을 느낀다.					
28.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29. 부모가 알지 못하는 유아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30.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기대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31. 의사소통 시 부모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다음은 부모-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된다.					
33.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영유아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34.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부모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35.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시도와 대화경험이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준다.					
36. 부모와의 일상적 대화 경험이 이후 문제발생시 부모와의 관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37.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					
38. 부모와 나누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경로를 선택한다.					
39.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이 신뢰감형성에 도움을 준다.					
40. 부모에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